

지저스타임즈 JTN방송 신년예배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필객의 붓이 되리라(시45:1)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세계를 향해 문서선교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불철주야 지저스타임즈의 발행자

로서, 인터넷신문 JTN방송(WWW.JTNTV.KR)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정가남 목사는 지난 1월 21일(목)오전 11시 서울 구로구 구로2동에 있는 바이킹해물뷔페에서 전국 9개 지사장, 내외 귀빈 동역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신년하례회 감사예배를 드렸다.

사무총장 장창운 목사(열린찬양교회)사회로 1부예배가 진행되고 사장 소진우 목사(서울예복교회)의 기도, 부이사장 정바울 목사가 성경봉독을, 웨신총회 총회장 성홍경 목사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아울러 부사장 민충만 목사(세계중앙교회)의 봉헌기도가 있었다.

2부에서는 상임이사 심재호 목사의 기도도 시작된 수석사에서 대표이사 정가남 목사는 부이사장 정바울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부사장

현병우 목사, 민충만 목사, 상임이사 고성규 목사, 김주원 목사, 신언창 목사, 정태종 목사, 정학영 장로(주)영광기업대표, 지저스-TV 오동남 집사, 등에게 2009년 한 해 신문사와 JTN방송이 성장되고 발전하는 데 아낌없는 헌신과 성원이 있었기에 이에 보답하는 마음에서 감사패를 전달하고, 양송섭 목사(대전 서부경찰서 경목위원장)를 중부권지사 상임총무로 위촉하고 패를 전달했다. 이어 정규남 목사, 박영남 목사, 송주창 목사, 김태곤 목사, 김승년 목사, 이기식 목사, 장한국 목사, 이병만 목사, 허성인 목사, 김준택 목사, 김영배 목사, 고영전 목사, 손찬원 목사, 하종우 목사, 전명철 목사, 정승룡 목사, 김형원 목사, 오기열 목사, 정재진 목사, 송미순 목사, 하상길 집사 등을 실무이사, 운영이사로 추대, 위촉장을 전달했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총회장 성홍경 목사는 '문서와 미디어를 통하여 선교 사업에 열정적인 헌신으로 웨신총회발전과 위상정



립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그 공로를 인정한다며 대표이사 정가남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정 대표이사는 사무총장 장창운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고문 이원석 목사 축도로 마쳤다.

3부에서는 부사장 민충만 목사가 제공한 오찬을 나누면서 본지 신문방송을 위하여 모두가 힘써 나가자며 덕담을 나누었다.

이어 정재진 목사 기도도 시작된 이사회에서

사장 소진우 목사, 부사장 현병우 목사는 신문을 증원 발행하고 더 많은 발간을 위하여 재정적인 후원을 전년대보다 상향조정하겠다는 약속과 2월 이사회 모임은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에서 갖는다는데, 이를 계기로 9개 지사를 순회하는 데 뜻을 같이하고 대전지사, 목포지사, 전북지사, 대구지사, 강원지사, 중부권지사, 제주지사, 경기지사, 부산지사 순으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합심기도로 이사회를 마쳤다.

웨신-백석, "교단 통합 속전속결로 하자"



예장 웨신과 백석 총회 임원들이 수원에서 첫모임을 갖고 기념촬영을 했다.

예장웨신 총회(총회장 성홍경 목사)와 예장백석 총회(총회장 유만석 목사)와의 교단 통합을 위한 첫 모임에서 양측은 조속한 시일 안에 통합을 성사시키자며 뜻을 같이 했다.

웨신과 백석총회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수원시 인계동 이비스엠버서더호텔 커피숍에서 첫 만남을 통해

교단 대 교단 통합을 전제로 하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라면서 양 교단은 뜻을 모아 이 일을 실현하고 분열로 일관해 온 한국교회 연합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날 양 교단은 각각 7인의 전권위원을 구성해 조만간 만남을 통해 양

측의 요구사항을 교환하면서 앞으로 세부적인 일정들을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웨신총회는 이미 증경총회장을 비롯해 8명의 전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아울러 백석총회에서도 이미 구성된 15인의 전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일부 조정을 거쳐 7인의 전권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첫 만남은 백석총회 측의 초청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양 교단 임원이 전원 참석했으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 30여분 동안 양 교단 통합과 발전을 위한 덕담을 나누는 후 오찬을 함께 했다.

양 측은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각각 교단과 임원들을 소개하고 백석측 부총회장 김기만 장로의 기도도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먼저 백석측 유만석 총회장은 "오늘 뜻깊은 만남이 이루어져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총회장 되기 전부터 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누구보다 연합을 좋아하고 이를 주장한다"고 말

했다.

또한 "앞으로 연합과 통일을 주장하지 않고는 민족복음화도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교단간의 연합과 통합은 민족복음화를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오늘의 첫 만남이 좋은 결실을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어 웨신교단 총회장 성홍경 목사도 "백석총회는 이미 웨신에서 간사람들도 많고 친분이 있는 관계로 낯설지 않다면서 반갑다"고 말했다. 또한 "합동위원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만석 총회장은 "통합하는데 선결조건으로 자리옥심 명예욕은 버려야 하며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속전속결로 조율해서 5월 21일 백석의 날 전진대회에서 통합선언문을 발표하는 기념비적인 날이 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 일을 위하여 소독 없는 것보다는 실리가 있는 통합이어야 하며, 통합으로 갔을 때 웨신측의 증경총회장

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총대권도 조건 없이 인정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백석측의 조건 없는 제의에 웨신측은 넘어야 할 산이 관건이다.

쉽게 말하면 백석측과의 통합 대 통합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흡수통합이나 마찬가지로이다. 그렇다면 웨신측은 웨신이란 큰 명칭을 버릴 수 있는가? 웨신측의 내부적인 결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결코 양 교단은 백석이나 웨신이나, 하나의 교단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앞이 보이질 않는다. 현재 백석총회에는 웨신에서 간목회자가 420여 명이 된다고 말하고, 총회산하 62개 노회와 3118개교회가 있는데, 반면 웨신은 19개 노회와 400교회, 지방 신학교가 4곳 정도이다.

이날 참석한 임원은 웨신에서 성홍경 총회장, 이홍규 부총회장, 김준택 서기, 조광표 부서기 대 장창운 부총회장, 이기식 회록서기, 고영전 부회록서기, 허성인 회재, 정일량 부회계, 신언창 총무 등이며, 백석측은 유만석 총회장, 노준길 김기만 유종현 부총회장, 신만섭 서기, 김동기 부서기, 이승수 회록서기, 신청의 부회록서기, 유철호 회재, 박창우 부회계, 이경욱 사무총장 등 모두 20명이다.

사설

장자행세(行勢)와 장자노릇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0년 경술년 8월 29일, 나라와 민족이 일본에 넘겨지는 치욕의 역사 거기 중심에 있었다. 그 후 36년간 젊은 여자들은 전쟁터의 위안부로 끌려가고 청년들은 군인으로, 장년들은 탄광 노무자로 징용당했다. 국가와 민족이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역사 속에서 배웠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경인년 2010년의 새해 아침이 밝아왔다.

100년 전의 우리의 모습과 100년 후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100년이 지난 우리는 1988년 세계 올림픽을, 2002년 FIFA 월드컵 행사를 개최하고, 경제적으로 G 10위,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G 20위 안의 중심국가가 되었다.

개신교 100년의 이 짧은 역사 속에 선교사 25,000 명을 파송한 세계선교 2위의 자리에 있다. 이 작은 나라가 짧은 역사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세계를 향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세계의 복음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100년이라는 한 세기 동안 우리는 힘이 없어 국권을 빼앗기고 압제받던 비극의 역사를 바꾸어 복음을 받아드리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열강의 변두리로 밀려난 나라에서 열강의 중심에 우뚝 선 나라가 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복음에 바탕을 둔 신앙의 힘, 창조적 에너지 덕분이었다.

장자는 장자노릇을 해야 한다. 카인은 장자다. 그러나 그는 장자행세를 해도 장자노릇을 못하는 형이다. 탕자의 비유속의 장자도 장자노릇을 못하는 장자다. 행세는 권리 행사를 말하고 노릇은 의무와 사명, 역할이다. 카인의 하나님을 향한 반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Am I my brother's s-keeper' 그렇다. 형은 아우를 돌보고 지키는 '아우지킴이brother's s-keeper' 다.

카인은 아우를 지켜야할 자가 죽었고, 탕자의 형은 잃었다. 찾은 아우, 죽었다 살아난 아우dead and alive, lost and found"로 인해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를 열어, 여러 사람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come and share my happiness"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 말씀 속에는 "장자는 아버지다, 형인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아버지 노릇을 대신해야한다" "아버지인, 내가 기쁘면 너는 당연히 기뻐해야 하고, 아버지인, 내가 슬프면 형인 너는 당연히 슬퍼야한다"우리의 어려운 이웃이나 무서운 재난을 당한 난민들의 참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를 세계 속에 장자로 세워 주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교회와 성도들이 장자가 되어 아우를 돌보고 지키는 '아우지킴이brother's s-keeper' 선한 사마리 인이 되어 강도만나 쓰러진 이웃을 돌보고 지키며 함께 동행 하는 '아우지킴이 neighbor's s-keeper' 노릇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장자가 장자의 복과 권리나 누리고 행세만 할 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기 마련이고, 2천년동안 세계에 산산이 흩어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본지 상임이사 박영남 박사(건대교수)

소진우 목사 2009년, 2010년 성회일정

한 해 동안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사 소진우 목사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로고스세계선교협회의 부총재
- 열방선교협회의 대표회장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예복교회 담임

2009년 1월

- 3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5~8 일산금관교회(주성민목사)
- 12~14 홍산교회(김양섭목사)
- 19~21 갈릴리교회(오덕주목사)
- 26~30 필리핀선교교회

2009년 2월

- 2~5 해방수양관(백재욱원장)
- 6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9~11 옥산성결교회(박병정목사)
- 16~18 칠곡연합성회(김성호목사)
- 23~25 소망교회(조성봉목사)

2009년 3월

- 2~4 도원교회(유순기목사)
- 2~31 봄철축복대심방

2009년 4월

- 6~8 목양교회(주화순목사)
- 13~14 정기노회
- 14~16 이우리교회(이재경목사)
- 20~23 남양주시기독교연합성회(김병식회장)
- 27~29 총회임원교육

2009년 5월

- 4~7 에스라선교제자훈련센터(이진희원장)
- 10~13 봄철축복성회(예복교회)
- 14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18~20 미쁜교회(이봉현목사)
- 21 민족복음화부흥사연수원
- 25~29 선교지방문 (25·부흥사연수원)

2009년 6월

- 1~4 인천마가의다락방(박보영목사)
- 7~10 새롬교회(김대수목사)
- 11 한빛교회(임선택목사)
- 15~18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22~24 완도순복음교회(정정환목사)
- 26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2009년 7월

- 3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 5~8 새영교회(인영근목사)
- 13~15 신학교세미나, 성산교회(김장남)
- 20~22 은헌기도원(조은원장)
- 24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27~30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원장)
- 3~5 마가다락방(박보영원장)
- 5~7 한얼산기도원(이영근원장)
- 10~13 에바다움타기도원(최민숙원장)
- 17~20 천문기도원(최정숙)
- 23~25 은헌기도원(조은)
- 28 한얼산기도원(이영근원장)
- 30~5 심야특별기도대성회

2009년 8월

- 7~11 온누리복음화수양회(엄기호목사)
- 14, 18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21~24 교단총회
- 28~3 추석주간

2009년 10월

- 1 마가의다락방(박보영원장)
- 5~8 열린기도원(장은혜원장)
- 12~13 정기노회
- 13~15 서북교회(배경락목사)
- 18~20 과천예복교회(노영수목사)
- 22 서주시찰연합철야(장대환목사)
- 25~28 예광감리교회(류인덕목사)

2009년 11월

- 2~5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9~11 임마누엘교회(김경정목사)
- 12 수동기도원(이태화원장)
- 16~20 선교지방문
- 23~25 전국목회자영성대회(총회장유만석)
- 30~2 대흥교회(정남기목사)

2009년 12월

- 7~9 신성교회(김병진목사)
- 14~17 해방수양관(백재욱원장)
- 20~23 한마음교회(신규태목사)
- 24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25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2010년 1월

- 4~7 도곡산기도원(양예지원장)
- 11~13 마가의다락방(박보영원장)
- 18~20 신광교회(조효원목사)
- 25~27 신일성결교회(최세걸목사)

2010년 2월

- 1~3 한샘교회(천복수목사)
- 8~10 옥산교회(김의태목사)
- 15~19 네팔선교
- 22~24 평택중앙교회(김옥복목사)

2010년 3월

- 1~3 천흥소망교회(김기돈목사)
- 1~31 봄철 축복대심방

2010년 4월

- 5~7 도원교회(유순기목사)
- 12~13 정기노회
- 19~20 이레교회(황송주목사)
- 22 오산리최자실금식기도원
- 26~30 선교지방문(열선협)

2010년 5월

- 3~5 신영교회(조진석목사)
- 10~12 새말교회(김병식목사)
- 24~26 미쁜교회(이봉현목사)

2010년 6월

- 7~9 신광교회(김두명목사)
- 14~16 열방교회(신보현목사)
- 21~24 김원산기도원(이옥란원장)
- 28~30 세영교회(이영근목사)

2010년 7월

- 5~7 에스라선교센터(이진희원장)
- 12~16 신학생 여름특별세미나
- 19~22 에바다움타기도원(최민숙원장)
- 26~29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원장)

2010년 8월

- 2~5 수도산기도원(이영이원장)
- 9~11 인천마가의다락방(박보영원장)
- 16~18 경성교회(이정근목사)
- 23~25 진전 오남지역 기독교연합성회(정영환총회장)
- 30~9.1 푸른초장교회(김응렬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기독교지도자협의회 신년하례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신년목 목사는 1월 7일(목) 오전 7시30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2010년 신년 하례회를 가졌다. 대표회장 신년 목 목사(예감 전 감독)사회로 진행된 예배에 삼일회장 박태희 목사(기성증경총회장)기도, 공동부 회장 조상범 목사(대기나 전 총무)가 성경봉독, 공동회장 김재권 목사(생명의 말씀사 이사장)는 “날마다 새로운 삶”이란 제하의 말씀을 사도바울은 철저하게 죽고, 철저하게 사는 삶을 가졌다



다. 또한 공동회장 한창영 목사(예감국제개혁총회장)의 내빈소개와 신년목 대표회장은 본회중 요일원을 소개했다. 이어 공동부 회장 우영락 목사(서울경찰청 전 총무)가 조찬기도를 했다.

예장개혁신년하례 및 세미나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총회장 박영희 목사)는 1월 7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403호 세미나실에서 2010년 신년 하례식 감사예배와 특별세미나를 가졌다. 총회 부서기 김성광 목사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를 위해 윤재봉 목사의 기도, 회계 광명주 목사가 성경봉독을, 부총회장 민흥기 목사가 “위대한 축복의 새 해”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이신 총장의 신년인사에서 총회의 화합과 단결로 위대한 총회를 위한 발전과 노회가 성장하고 지교회와 부흥하는 2010년, 도



약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아울러 부총회장 전하라 목사가 축사를, 증경총회장 남종석 목사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특별기도에 나라와 대통령을 위하여, 총

총회위상 강화...웨신총회 비전제시

웨신총회 2010년 신년하례식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화합과 협력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웨신총회”라는 주제로 지난 1월 4일 오전 11시 부천 소사구 괴안동 운누리 웨딩홀에서 2010년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부총회장 이흥규 목사(지구총교회)사회로 예배가 진행되고 서기 김준택 목사 기도를 회계 허성인 목사가 성경을 봉독하고, 총회장 성흥경 목사는 “새해 결심과 목표”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성 총회장은 다사다난했던 2009년을 보내고 꿈과 희망찬 2010년을 맞았다면서 꿈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화합해 나가자고 말하고 총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총회의 브랜드가치가 업그레이드 되는 데 모두가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새해 모두 건강하고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목회현장의 부흥과 함께 총회



가 크게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했다.

이어 감사패 전달이 있었으며, 총무 신인창 목사의 광고에 이어 증경총회장 김용진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부회계 정일량 목사(중안노회)의 진행으로 2부 신년하례식이 시작되고 케익 절

단을 가졌으며,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손에 손을 잡고 축하를 하였으며, 기념촬영이 있는 후 오찬을 가졌다. 이날 총회수첩과 우산과 말씀이 새겨진 탁상용 액자 등을 총회원들에게 증정했다.

예장통합 총회 '300만성도운동' 목표 달성

예장통합 총회는 ‘예장300만성도운동’을 전개한지 1년 3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하고 25일 명성교회에서 ‘300만 성도 성취 축하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장300만성도운동본부(본부장 안영로 목사)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성도 수가 3백만850 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각 노회 전도 목표를 세례교인의 20%로 정하고 시작한 운동은 전도 목표를 100% 이상 기록한 노회가 33개 노회이고, 80%까지 달성한 노회는 13개로 조사됐다.

예장총회, 기발협 신년하례회

한국교회와 성도 위해 특별기도



기독교발전협의회는 신년하례회 및 세미나를 지난 1월 13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가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사)기독교발전협의회(대회장 이종택 목사)는 2010년 신년하례회 및 세미나를 지난 1월 13일 오전 11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가졌다. 김용진 목사(대한기독교교단연합회 이사장)사회로 예배가 진행되어 박춘복 목사(예장 개혁신년총회 총회장)의 기도, 김서예 목사(예장합동개혁신년총회 서기)가 성경봉독, 민수영 목

사(주장양교회)가 특별주년을 했다. 조성훈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이사장)가 “명철한 자의 영원한 생명의 샘”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임상배 목사(예장합동개혁신년총회 총회장)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박명자 목사(예장합동개혁신년총회 중부노회 노회장)는 한국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각각 특별기도했다.

아울러 신응균 목사(한국성경공회 출판위원장), 김인식 목사(예장통합총회 총회장) 등이 축사를 맡았다. 또한 이신재 목사(한국법원국 제문화대학원대학교 이사장), 강재원 목사(예장합동개혁신년총회 총회장), 이상형 사관(재)국제복음선교회연맹 대표회장), 등이 축사를 했으며, 이종택 목사(기발협 이사장) 인사와 광고를, 민승국 목사 축도로 마쳤다.

소강석 목사 세계성령증양협 대표회장 취임

“임기동안 불쏘시개가 되겠다”



소강석 목사

난 31일 주일저녁 7시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새에덴교회 대 성전에서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소 대표는 “2007년 세성협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 행사에 참여하면서 교회 부흥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회장 임기 동안 부흥사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또 소 대표회장은 “목회 외에는 신학교 강의와 기독교 민간외교 활동, 선교 등에만 집중했는데 갑자기 세성협을 맡은 것은 침체된 한국교회 부흥을 성령 사역으로 되살려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세성협이 주회하는 2010천만인 성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심포지엄을 통해 성령운동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성령백년인물사 전집 발간을 통해 성령운동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평양에서 100만인 구령운



동을 시작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국전쟁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세성협은 이 땅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을 펼치면서 평양장대현교회 성령강림 110주년인 2017년까지 천만인을 구령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 대표회장은 이를 위한 일환으로

2월에 9명의 감사진을 꾸려 호주에서 오세아니아성령대회를 연다. 세계선교의 포문을 여는 이 행사는 이만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성령 사역에 포커스가 맞춰진다. 3월에는 성령사역자를 선정, 홀리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상식을 갖는다.

정기남 김무정 기자 공동취재

이제 교회도 풀 칼라시대!

COLOR가 살아있는 칼라주보복합기
세계 최초 1m 20 출력

주보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복사, 출력) 가능

표준 소비자가 ₩1,595,000 D/C ₩605,000

교회 특별행사가 ₩ 990,000,000

인쇄 + 복사 + 스캔 + 팩스 = 하나로

동급 최고의 인쇄 속도를 지원하는

컴팩트한 디자인의

주보용 컬러 레이저 복합기

PRINTING SOLUTIONS

COLOR 3530 MULTIFUNCTION PRODUCT

PC형 주보 인쇄기

우리교회 주보 (인쇄)를

우리가 만들어요

- 손쉬운 작동
- 컬러 인쇄로 OK
- 신속한 인쇄
- 용지선택의 Free
- 저렴한 비용
- 뛰어난 내구성
- 고품질도의 인쇄물
- 다양한컬러인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최초 칼라 복사기 A3 20매
200만원대 출시기념!

흑백기 가격으로 칼라기를 쓴다!

100대 한정판매시 6,800,000 원 → 2,990,000 원

※ 빌려서라도 이번 기회에 꼭 구입하세요. (36개월 할부, 중고복사기 보상)



이제 교회도 FULL Color시대 입니다!!
세계최초 최대 1m 20cm 출력!

Color 200 A3 단면 자동 양면 칼라 / 흑백 출력 복사 & 프린트!

가성비 DOWN UP
8가지 기능을 하나로
모든 부속 인쇄물용 단면대로 OK
교회의 모든 인쇄물을 단면대로 OK
두꺼운 장갑 작업 만드는 교회인쇄물

주보 전도지 포스터 한글봉투 소책자 교회요람 부흥회예배 등
주일학교 유치원 초·중·고등부 홍보실 청년부 성가대실 교회사무실 등

절지기, 중절기



중절기 & 절지기
B5 A3까지 중절기: 절지
장 이상의 주보교재책자 등 20
매 80 페이지 가능



주보절지기
23.4cm 주보 인본에
절지기는 간편조절
기능 분량120매까지



T-압착기 영광기업 갈라복합기로 사진, 그림, 글씨를 출력
해서 1장부터 다량까지 즉석에서 티셔츠, 쿠션, 모자, 가방,
타올 등에 T-압착기로 찍어서 여름성경학교, 교회
각종 행사에 필요한 모든제품을 직접 만들면 시간적
약은 물론 비용 면에서 말기는 가격에 10~90%까지
절약되며 우리교회만의 독특한 상품이 완성됩니다.

인사말씀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교회와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좀 더 좋은 제품,
공급을 통하여 교회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 아래
교회의 입장에서 최선을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목사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빌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가 있
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이사: 정학영 장로 올림 010-5779-0691

영광기업이 15여년을 보냈습니다.

-한번 판매한 제품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51-3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앞)

C·P : 010-5779-0691, 017-332-3217 Tel : 02)2065-1004 Fax : 032)544-0244

50여종의 교회에 필요한 사무기기가 전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영광기업

Glory Enterprise Co., Ltd.

1588-0691

www.jubo114.com

대전중앙지방 교역자·장로 신년교례회 가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전중앙지방 장로회 주회와 대전중앙지방회 후원으로 지난달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에서 신년하례 감사예배를 드렸다.

제1부회장 손창문 장로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 이완희 장로(장로회직전회장)가 기도, 오두환 목사(지방회장)는 "믿음으로 바라보자"란 제하의 말씀을 전하고, 1.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종준 목사(중앙감찰장), 2.한국교회를 위해 박용구 목사(대전감찰장), 3.성결교단을 위해 김준호 목사(서남감찰장), 4.대전중앙지방회와 평신도기관



을 위해 각각 특별기도가 있었으며, 회장 문종식 장로가 인사, 제2부회장 손완구 장로의 내빈소개와 총무 민경일 장로는 인사 및 광고를, 박영섭 목사(충청지역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중부권지사장 박양우 기자

통합총회유지재단 김삼환이사장 취임

(재)예장통합 총회유지재단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11일 오후 3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드려졌다. 서기이사 박창재 목사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회계이사 안옥섭 장로가 기도를, 이사 황말수 장로의 성경봉독, 명성교회 아가페 여성중앙단의 특송에 이어 총회장 지용수 목사는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요셉" (창41:38-49)이란 제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사명에 최선을 다했듯이, 총회 유지재단이 산하 모든 재산을 보석처럼 아끼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증경총회장 림인식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증경총회장)는 예장통합 총회유지재단 제11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박중창 목사에 이어 이사장에 취임한 김 목사는 취임사에서 총회 유지재단을 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히고 "총회가 잘되는

것이 중요하다. 주어진 총회의 사명에 순종하면서 100%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에는 증경총회장 안영로 목사, 이광선 목사, 유의웅 목사, 부총회장 김정서 목사 등 교단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 축하했다.



고승곤목사 바울교회 설립예배

고승곤 목사는 지난 1월 16일(토)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가락2동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바울교회를 설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배영수 목사(목양교회)인도로 진행된 예배에 김재홍 목사(진실교회)가 기도를, 이세움 목사(넘치는교회)가 성경사도행전 9:15~18절을 봉독하고, 전희경 전도사의 특송

과 뉴월드찬양예술선교단의 위임이 있었다.

이날 권남수 목사(신도림교회)는 "사도바울의생애"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이도엽 목사(종신중앙교회)의 축사가 있었다. 고승곤 목사(바울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바울교회를 설립케 되었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목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신앙과 학문으로 지도해 주시고 설립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사를 전한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위에 크게 확장되고, 복음사역에 크게 사용되도록 기도를 부탁하면서, 인사를 했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 통합감사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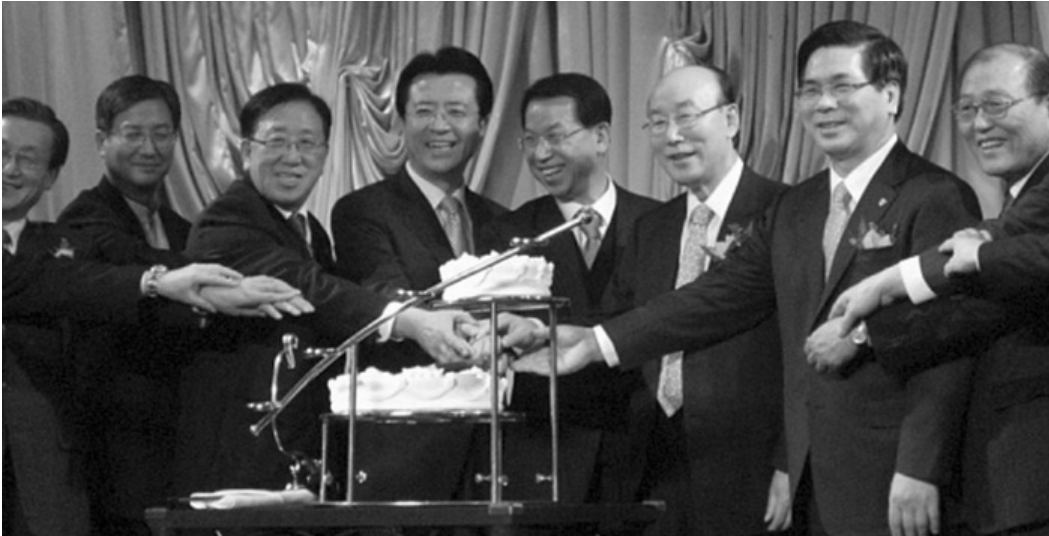
한국교회봉사단과 한국교회희망연대 두 봉사단은 29일 서울 장충동 엠버서더호텔에서 한국교회희망봉사단으로 통합 총회를 갖고 통합 감사예배를 드렸다. 두 봉사단은 한국교회희망봉사단으로 새롭게 날개를 달고 비상했다. 희망봉사단은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섬김과 봉사로 희망 전도사가 될 것을 선언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조용기 목사는 설교에서 "교회와 국회는 물론 부부까지 온통 갈라지는 소식만 들리는 이때에 두 봉사단의 통합은 깜짝 놀랄만한 일"이라면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 이 민족에게 봉사하기로 다짐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며, "우리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희망과 봉사"요 "한국교회가 정체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끼리 잔치를 해서 그런 것이지, 교회가 답을 뛰어 넘어 열심히 봉사한다면 우리나라 국민 50%까지 복음이 이뤄질 것"이라고 희망봉사단의 사역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희망봉사단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는 인사에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 또 세계를 위해 큰 작품을 만들어 주셨다"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소외된 자들과 세계를 위해 봉사가 크게 넓어지고 확대돼,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이라면서 통합의 의미를 전했다.

이어 한기총 이광선 대표회장은 "희망봉사단의 통합에 감사를 전하고, 기쁨의 축하를 전한다"면서 "이러한 모습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빛이 돼, 한기총과 NCKC도 통합의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란다"는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전병



호 목사, 문화체육관광부 김대기 차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이재훈 상임대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득린 회장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격려사를 맡은 사랑의교회 원로 옥한흠 목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아울러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통합을 기대하며, 통합 총회에 많은 교계지도자들이 참석, 축하했다.

한국교회봉사단과 한국교회희망연대 등이 통합을 선언하고 출범한 이 자리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과 용산참사 유가족들, 경찰유가족 등이 참석을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사역에 기대를 걸었다. 이 외의 시각장애아동 빛소리 중창단은 시각장애인 김하연씨의 반주에 맞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를 찬양,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날 희망연대는 용산참사유가족 5명에 각각 2천만원, 경찰유가족 1명에 치료비 5백만원 등

1억 5백만원이 전달 되었다.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상임단장 이영훈 목사, 오정현 목사, 상임이사 이철신 목사, 손인웅 목사는 직접 나서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한 후 이들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이 자리에는 용산참사 유가족 대표와 경찰 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같은 슬픔을 나누고 있는 서로를 응원하고 용서하는 화해의 악수를 나눠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아울러 여의도순복음교회와 명성교회, 서희 건설은 용산희생자 5명의 안치 비용 7천5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회희망연대는 모금액을 아이티 지진 재해구호 성금 약 15억원(교회 회원 모금 포함)을 아이티에 전달한다. 게다가 한국교회의 아이티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연합사역으로 아이티 재해 복구를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했다.

“WCC 총회 대책” 보수교단 모임 결성

한국 교회의 정체성 시수...다원주의·혼합주의 거부 천명

2013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를 앞두고 보수 교단들이 대책 모임을 결성했다.

예장합동측 초청으로 25일 오전 11시 장충동 엠버서더호텔에 모인 18개 교단들은 “보수 교단들이 힘을 합해 한국 교회의 정체성을 사수하고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등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어떠한 단체 및 기관과의 연합을 거부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또 세계교회협의회 WCC 대책에 나서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9월 각 교단 총회에 WCC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 추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공동회장에 예장합동의 서기행, 서정재 목사와 고신 박종수

목사, 합신 임석영목사, 고려 석원태 목사를 선임했다. 또 공동부회장은 각 교단 총회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장에 예장합동 이지우 총무를 임명했다.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신 임종수, 고려 송태성 총무가 맡았으며 서기와 회계에 박종언, 강구원 목사를 선임했다.

준비위 조직 확정에 따라 예장 합동과 고신, 고려 등 18개 보수 교단은 각 교단 신학자들에게 WCC 신학 검증을 의뢰하고 오는 9월까지 교단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는 보수 교단들의 연합과 다원주의 배격, WCC 총회에 대한 선전 자체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이사와 편집위원과 해외지사

발행인 : 정기남 목사

상임고문 :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김호일 목사(생명나무교회)

부이사장 : 정성준 목사(열린찬양교회)

사장 :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부사장 : 현병우 목사(임마누엘선교회), 민충만 목사(세계선교중앙교회)

전국지사

대전 충청지사장 : 박양우 목사(대전경찰청 경목위원회 상임총무)

전남 목포지사 지사장 : 조광표 목사(목포만나교회, 목포신학교 학장)

경북 대구지사 지사장 : 이상락 목사

전북 전주지사 지사장 : 박주성 목사(선일장로교회)

해외지사

우간다 지사장 : 김기일 선교사

미국 워싱턴 지사장 : 정형선 목사

태국 치앙마이 지사장 : 전승주 선교사

필리핀 지사장 : 이경철 선교사

호주 지사장 : 이종수 선교사

일본 지사장 : 전동웅 목사(동경신학교 학장)

인도 지사장 : 문흥기 선교사

본부 업무국 부장 : 정태중 목사

본사 이사회 사무국 : 전향희 부장

포토국 기자 : 신화자 권사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경찰공제회) 1층

본지인터넷신문방송 www.JTNTV.kr (E-mail:webmaster@JTNTV.kr)

전화:070)8230-0032,0034, 02)741-0031, 02)407-6574, 팩스:02)763-0221

대표 : 011)468-6574

도심속의 실버타운 노인장기요양(주·야간 및 단기보호) 사랑의 집 노인복지센터(요양원)



치매,중풍,노환 등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년기 만성질환의 이르신을 모시는 사랑의집입니다.

현대식시설에서 가족과 같이 정성을 다해 내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 저렴한 비용으로 모십니다.

입원시설 완비! 어르신을 댁에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립니다.

인터넷 '인천닷컴'에서 '치매'나 '중풍' 검색 (www.saranghouse.com)

■매주 화, 목, 토, 3일 동안 14년째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월 1,000원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사랑의 집(노숙자쉼터·무료급식) 비록 작은 정성이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랑의집에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노력봉사:간병 청소, 목욕, 말벗, 급식, 외출통행 등

전문봉사:이·미용, 간호조무사, 의료봉사 등

매일 10명씩 술로 사망...목숨 걸고 마실 전가

대한이 지나 이제 입춘이 코앞이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대한민국의 술꾼들은 술을 끊거나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을 것이다. 벌써 작심삼일이 되거나 계획 실행이 흐지부지하다면, 지금까지는 연습으로 치고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입춘은 우리 조상들에겐 진정한 새해의 시작이었다. ‘술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금주는 물론 절주도 쉽지 않다. “술을 잘 마셔야 성공할 수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술을 피할 수 있겠냐”고 말하고,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는 풀린다”고도 흔히 말한다. 그러나 술로는 스트레스가 절대 풀리지 않는다.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만성적인 음주와 폭음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한다. 실제로 술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술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등 무수한 폐해가 줄을 잇는다. 매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0만건을 넘는다. 음주는 범죄를 부추기고, 생활과 가정을 파괴하며, 생명까지 위협한다. 특히 오랜 음주는 간 건강을 해치기 마련이고 평소 간 간염 등 간질환을 앓고 있다면 술자리는 더욱 피해야 한다. 간질환을 제때 치료받지 않고 계속해서 술을 마실 경우에는 간경변증과 간암으로의 진행이 가속화된다. 간은 아주 무던한 장기라서, 병이 깊어져도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는 경우가 흔

해,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평소 시 간 건강을 점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간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질병들이 생긴다. 애주가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간질환들을 살펴보고 예방 및 치료법을 알아보자. ◆지방간 지방간은 전신적인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다른 장기에서 간 내로 다량의 지방산이 유

습관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 또한 꾸준히 운동은 체중 조절, 당뇨와 고지혈증 여야 한다. 간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질병들이 생긴다. ◆바이러스성 간염 ▲A형 간염 20~30대 젊은 층에서 많이 발병되고 있다. 주로 오염된 음식과 물, 환자와의 신체접촉 등을 통해 감염된다. 최근 A형 간염이 급증하고 있는데 원인은 위생

있다. 간염 환자와 성관계 등의 친밀한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영유아시기에 감염될 경우 만성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성간염이든 보균자이든 간경화나 간암 등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탓에 간염이 심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효과적인 만

한다. B형간염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단 만성 C형간염으로 확인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인터페론 주사와 리바비린 경구 투여를 병용하여 완치를 노릴 수 있다. ◆간경변 주로 중년 이후 남성에게서 발생하는 간경변은 만성 B, C형간염, 알콜성 간질환이 주원인이다. 지속적으로 정상 간세포가 파괴되고 재생되는 반복적인 염증의 결과로 섬유화가 진행되어 정상 간 조직의 양이 줄어들어 간이 단단하게 굳어진다. 간염의 경우 염증이 치유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만 간경변증은 정상으로의 회복은 어렵다. 간경변은 한참 진행될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데 간은 15~20%만 있어도 최소 생존에 필요한 대사작용을 해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간경변의 진단은 늦어지기도 하며 간경변의 여부는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로 가능하게 되나 현재 진단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 중이다. 간경변 말기엔 복수, 식도정맥류출혈 및 간성뇌증상과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기기도 한다. 간암으로 발전할 위험도 매우 높아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검사가 필수이다. 적절한 영양공급 실시하고 위험인자인 바이러스 혹은 음주를 조절하고 합병증 관리와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이세환 교수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화기내과

술로 인한 피해 심각, 매일 10명 넘는 사람들 술로 인해 사망 음주는 범죄 부추기고, 생활과 가정 파괴하며, 생명까지 위협

입되고 간 자체에서 합성되는 지방산의 양이 증가되어 간 내 지방산의 축적으로 인해 생긴다. 대개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으나 최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증가 추세다.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이 원인이 된다.

이러한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때는 간기능검사에서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지방간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 환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으나, 지속적인 염증으로 간세포가 파괴되는 지방간염이 지속될 경우 10년 후 약 20%까지도 간경변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지방간을 치료하려면 음주, 고열량, 육류 등 고지방 식품과 인스턴트식품을 자주 먹는

상태가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여 소아기 감염 빈도가 줄어 항체 보유율이 낮기 때문이다.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감기몸살이 발생했다가 식욕부진, 오심, 구토, 소화불량 등의 소화기 증상으로 진행된다. 이후에 소변이 짙어지고 황달이 발생하게 된다. 특별한 치료제는 없으며 대부분 휴식하면 저절로 낫는다. 손씻기 등 개인위생이 예방의 기본이나 강한 감염력으로 인해 백신접종이 추천된다. 만1~16세 사이에 접종을 추천하며 1차 접종 후 6~12개월 뒤 추가 접종한다. ▲B형 간염 만성 간염 산모가 출산 시 아기에겐 전파되는 수직 감염이 문제였으나 현재 백신과 면역글로불린으로 90%까지 전파를 차단하고

성 B형간염 치료제가 많이 출시되어 있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제를 선택하여 간염과 바이러스 활성을 조절할 수 있다. B형간염 백신은 현재 영유아 기본 접종이며 항체가 없는 성인의 경우에도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C형 간염 주로 환자의 혈액을 통해 전염되나 아직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다. 일상적인 접촉에 의한 전염력은 낮고, 수직감염도 드물다. 그러나 감염되면 자연회복이 되지 않아 대부분 만성 간염으로의 진행되며 이 가운데 20~30%는 간경변으로 발전한다. 백신도 없어 예방이 어렵다. 약물 남용이나 문신, 피어싱 등을 삼가고 환자와 면도기, 칫솔, 손톱깎이 등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정운찬 총리, 한기총방문

이광선 회장과 세종시, 역사교과서, 사학진흥법 등 현안문제 의견 나눈

정운찬 국무총리가 한기총 신임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를 방문해 취임축하와 더불어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월 29일(금) 오후 한기총을 방문한 정운찬 총리는 이광선 목사에게 “대표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며 인사한 후 “사회적으로 이념·계층·지역 간 분열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통합에 기독교의 도움을 부탁드리려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광선 목사는 “바쁜 국정수행 중에 이처럼 방문해 취임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정운찬 총리는 “총리 취임 후 가장 시급했던 두 가지 과제가 용산참사 해결과 세종시 문제였다”며 “용산문제 해결에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광선 목사는 “세종시 문제도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니 잘 해결될 것”이라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설득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운찬 총리는 “충청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을 돌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지역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충청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의 환대에 무척 감동받았다”고 말한 후 “한기총의 세종시 관련 성명도 정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광선 목사는 “교회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의무”라며 “한기총이 세종시 관련 성명을 발표한 것도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 말했다.

이광선 목사는 “현재 초·중·고 역사교과서에 타종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술된 반면 근대사에 큰 역할을 감당한 기독교에 대해서는 단 한 항목도 배정하고 있지 않다”며 “역사교과서에 기독교



서술이 공정하게 되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또 “미흡하게 개정된 사립학교법 대신 사학진흥법이 제정되어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운찬 총리는 “관련부처와 함께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광선 목사는 또 “재개발 과정에서 상가 임대교회가 적절한 보상도 없

이 쫓겨나고 있으며, 심지어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교회조차 철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김대기 차관이 동행했으며, 한기총은 김삼환 목사(공동회장) 김요셉 목사(공동회장) 김운태 목사(총무) 문원순 목사(서기) 김동근 장로(회계)가 배석했다.



성서공회, 아이티에 성경 지원

대한성서공회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티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현지어 성경 8천부를 기증하기로 했다. 성서공회는 지진발생 후 아이티성서공회 피해상황을 살펴보았지만 다행스럽게 성서공회 건물과 직원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현지에서는 식량과 약품 등 이재민을 위한 물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재해를 당한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성경이 필요하다는 대한성서공회에 긴급요청을 해왔다.

대한성서공회는 아이티어 성경 8천부 제작에 나섰으며 2월 중 발송하기로 했다. 성서공회는 2월까지 아이티 항구가 복구되지 않을 경우 도미니카공화국으로 발송, 육로를 통해 성경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송석교회



성흥경 목사
예장웨신총회 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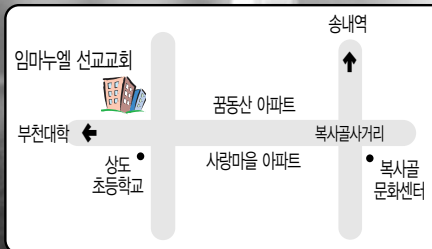
담임 : 성흥경 목사(웨신, 총회장), 성용구 목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599-4
☎031)204-5580

임마누엘 선교교회

현 병 우 목사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금요철야 : 오후 9시
월·화 영성사역 :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 영성원
☎. 011-9710-919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평안교회”



담임목사 장 승 현

온 세상을 향하여
천국복음을 전파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안교회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곡리 55-6 Tel. 041)356-0644 / Fax.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 011-9027-9712

■ 가정예배 ■



소진우 목사
서울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제목: 예수가 주인이 되는 가정

찬양: 찬송가 86장 성경: 마태복음 18장1-9절
사람들은 크고 작은 것 그리고 많고 적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천국에서도 누가 큰 자 인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큰 기적을 행할 때 천국에서 큰 자 일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큰자가 아니라 겸손한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가정마다 누가 큰 자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겸손에 관심을 두고 예수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크고 작음이 아닌 많고 적음이 아닌 예수가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찬양: 찬송가 403장 성경: 마태복음 18장10절-14절
텔레비전을 보면 헤어진 부모를 찾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려 고아가 된 사연들이 소개됩니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두명의 자녀중 한 명의 자녀를 고아원에 맡긴 사연들도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부모도 힘이 들면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행복을 디자인 하라

성경: 히브리서11장7절
(아벨과 에녹) -아벨의 믿음은 예배이다. 하나님께 첫것을 드릴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첫것을 드리지 못하고 말기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은행보다 세상의 학원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에녹의 믿음은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처음부터 살았는가? 아니다. 므드셀라(종말)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한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들었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제목: 당당하게

찬양: 찬송가 388장 성경: 마태복음 18장15절-20절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든지 묶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풀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세상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잃어버린 기술

찬양: 찬송가 518장 성경: 마태복음 18장21절-35절
잃어버린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너가 아닌 바로 나라고 또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야 말로 완전히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에서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35절)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잃어버린 기술 바로 용서의 기술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무리인가 제자인가

찬양: 찬송가 511장 성경: 마태복음 19장1절-2절
이 땅에는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순결한 신부와 같은 제자들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이 있기에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무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제자’

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무리’의 삶이 아니라 순결한 주의 신부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선택의 기준

찬양: 찬송가 305장 성경: 마태복음 19장3절-12절
본문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 명쾌한 해석과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 이외의 경우에는 합리화 될 수 없다고 단언함으로써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결혼과 이혼은 사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결정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혼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혼과 이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막지 말고 보내라

찬양: 찬송가 442장 성경: 마태복음 19장13절-15절
본문을 보면 기도하고 안수하는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말씀하면서 천국은 어린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보면 시험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유행병이 돌면 교회는 문을 닫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교회가고 싶어하는데 부모들이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을 막지 말고 보내라” 우리들의 가정마다 자녀들을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지 말고 보내는 믿음의 신실한 가정이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천국을 소유하려면

찬양: 찬송가 506장 성경: 마태복음 19장16절-30절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원은 결코 물질적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지 않음을 말씀하면서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고자 했던 당시의 일부 그릇된 종교인들과 현대의 물질만능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을 섬기고 물질의 능력으로 돌아가더라도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만큼은 물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행복한 삶을 디자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무슨 일을 하던지...

찬양: 찬송가 351장 성경: 마태복음 20장1절-16절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공로지향적인 태도를 경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 판가름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어 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면 당연히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헌신을 하면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닌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먼저 내려놓기

찬양: 찬송가 344장 성경: 마태복음 20장17절-19절
예수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능욕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삼일에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질문을 하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자들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게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의 가정이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

찬양: 찬송가 485장 성경: 마태복음 20장20절-28절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삼일만에 부활하게 될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예수님께 나와 좌편과 우편에 자신의 아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세상의 헛된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였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주님이 물으신다면

찬양: 찬송가 342장 성경: 마태복음 20장29절-34절
본문을 보면 두명의 소경이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무리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류국가를 창조하는 ‘국민의 힘’ 발대식

(사)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이사장 김호일 목사)는 2월 2일(화) 오전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일류 국가를 창조하는 ‘국민의 힘’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 정운찬 국무총리의 축사가 있었으며,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 정세균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 격려사에 나섰다. 김호일 목사(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는 일류국가를 창조하는 ‘국민의 힘’에 대한 창립취지 및 지향목표는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국민의식 등 제 분야에서 전 근대적이고 낙후된 부분을 개선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대한민국을 살기 좋고 행복한 세계 일류국가로 재창조한다. △전개할 운동의 주안점=① 감사원을 국회산하로 이관 ② 국회의 국정감사 실효성 제고 ③ 국회의 입법권 보장 ④ 의원 보좌진의 대폭 확충 ⑤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 국회의원이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도록 의식을 전환 ⑥ 국회의원의 표결에 자유투표의 의사 존중 ⑦ 국회의원 선거 시 합동연설회를 부활하여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기회 확충 ⑧ 국회의원 임기 동안은 상업적인 지위 불허 ⑨ 국회의원 후원금 모집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모금을 확대시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지원.

column

철길은 왜 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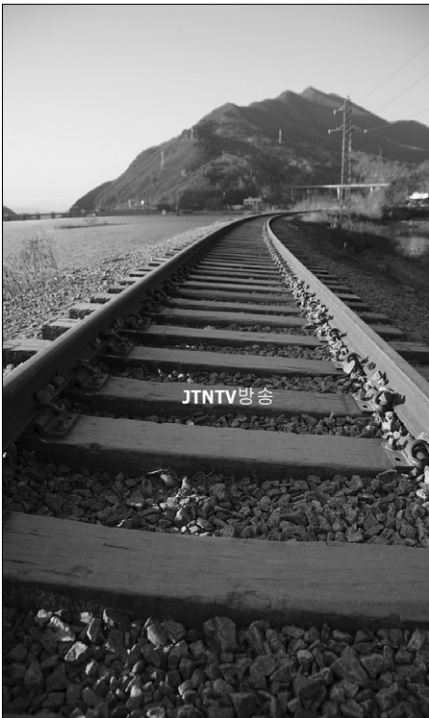
길은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멀고 험한 길일수록 둘이서 함께 가야 한다는 뜻이다.

철길은 왜 나란히 가는가? 함께 길을 가게 될 때에는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늘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토닥토닥 다투지 말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말고, 높낮이를 따지지 말고 가라는 뜻이다.

철길은 왜 서로 닿지 못하는 거리를 두면서 가는가? 사랑한다는 것은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

서는 둘 사이에 알맞은 거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서로 등을 돌린 뒤에 생긴 모난 거리가 아니라, 서로 그리워하는 둥근 거리 말이다.

철길을 따라가 보라. 철길은 절대 90도 각도로 방향을 꺾지 않는다. 앞과 뒤, 왼쪽과 오른쪽을 다 둘러본 뒤에 천천히, 둥글게,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커브를 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도 그렇게 철길을 닮아간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누리교회



담임 전현구 목사
웨신총회 감사

충남 당진군 고대면 용두리 512-4
☎041)356-0688, 019)410-0688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



담임 이이중 목사

원로 : 김영환 장로
장로 : 우만호 장로, 신호균 장로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 65-2
☎031)714-1426, 7236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척교회



담임 정재규 목사

(우 153-837)
서울시 금천구 시흥 4동 3-64번지
☎. 02)803-4549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성교회



담임 장창수 목사

부목사	전정우
안수집사	홍영준
요achim	홍영준
이조	홍영준
차경	홍영준
공경	홍영준
정경	홍영준

말씀으로 무장화!
기도로 능력화!
생활로 향기화!

447-140 경기도 오산시 결동 651-1
Tel : 031)373-1151, 377-9372
FAX : 031)372-2583

아이티의 재난, 한국교회의 기회

차인표 신애라 부부 1억 내놔...되돌려 받을 수 없는 절호의 찬스

2010년의 벽두에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1월 12일 7.3의 지진이 아이티를 강타했다. 7.3이면 온전한 건축물이 없을 정도로 심한 균열이 생기고 지표면에 침하하고 절로가 심하게 될 정도이다.

한국의 긴급구조대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체가 너무 많아 시체를 수습할 시간보다 아직 살아남은 자들을 찾기에 바쁘다고 하는 소식이 들린다. 10만에서 2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망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만 있을 뿐 정확한 통계도 지금은 어렵다. 정부도 무너져 손을 쓰지 못하고 구호생필품은 전달할 길도 손도 없어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속절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재앙 앞에 세계는 발 벗고 나섰다.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려는 손길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차인표, 신애라 부부는 아이티에 수양딸 웨스터 린(10)을 둔 신 씨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는 2005년 필리핀 여자아이를 입양한 후 지금까지 33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이들 차인표 신애라 씨 부부는 아이티 구호헌금으로 1억원을 내놓았다.

우리나라는 종교를 초월하여 모금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도 마치 그것이 나의 일인 양 너도나도 운동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일보에 의하면 한국의 기독교 NGO가 현지에서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전한다.

한국월드비전(회장 박종삼)은 목표액 50만 달러(5억5000만원)을 모금하고 있는데 여기에 노숙인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산마루교회(이주연 목사)에서 진행된 노숙인을 위한 예배에서 100원에서 1000

원짜리 지폐까지 32,000원을 헌금했다는 것이다. 월드비전 국제구호팀 정지선 과장은 “우리 돈 2만원이면 임시대피소를 만들 수 있는 방수포를, 1만원이면 휴지와 비누, 치약, 칫솔 등의 물품으로 구성된 위생키트를 지원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정성이 아이티에 전해지면서 많은 국제구호 단체들이 한국 NGO의 활동과 국민들의 열심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이바스(회장 이일하)에는 지난 14일 모금이 시작된 후 이날 오후까지 6000여건의 문의가 쇄도했다. 모금 방법과 자원봉사 절차를 묻는 내용이었다. 모금액도 당초 목표(5억)를 넘긴 7억원에 달했다.

윤보에 간사는 “국민들의 의식 향상으로 국제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한국민의 힘이 현지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 파견돼 구호활동 중인 이병희 국장은 “아이티인들은 얼굴도 모르는 한국인들이 보내온 구호품을 고맙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기아대책(회장 정정섭)도 구호품 분배에 힘을 쏟고 있다. 17일 1차 구호에 이어 2차 구호 준비를 하고 있는 이철희 긴급구호팀장은 “물품을 받으려는 주민들이 흥분해 있어 분배 자체가 쉽지 않았다”며 “2차 배분에서는 국제기아대책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음식과 물”이라며 “생존자들이 탈수증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피플(회장 양오현)은 복구를 위한 복합적인 재건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화된 구호활동 전개를 위해 오염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전염병 확산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국피플은 의료와 방역 구호 활동을 위한



탈린트 신애라씨가 지난해 3월 아이티에서 수양딸로 삼은 웨스터 린양을 꼭 껴안고 기뻐하고 있다. <한국컴패션 제공>

전문 의료진을 21일 파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 라이프 스트로(빨대형 정수기)와 담요, 칫솔, 비누, 치약, 수건, 기본 의약품, 정수器等으로 구성된 긴급구호 키트도 전달한다.

지구촌나눔운동 김혜경 사무총장은 “한국 NGO들의 90%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기독교 NGO들은 종교를 뛰어넘는 활동으로 아이티 참사 복구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국민일보에 전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임신형 목사)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성금모금을 시작했고 구세군대한본영(전광표 사령관)도 아이티 돕기 모금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서울영동교회(정현구 담임목사)는 24일 주일헌금 전액을 아이티 구호헌금으로 드리기로 했다. 현지에서 구호활동을 하려는 선교사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금 아이티는 약탈 등의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특히 유색인종이 표적이므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장 합동(GMS) 파송 전용구(66) 선교사도 “한국 선교사들이 도우려 해도 현지의 치안이 부재한 상태여서 아이티 입국 자체가 불가

능한 상태”라며 “도미니카 한국대사관은 한국인의 아이티 입국을 만류하고 있고 설사 들어가더라도 차량이나 물품이 탈취될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전 선교사는 “오히려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의료진과 생존자를 위한 도움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현지 선교사들에 따르면 아이티 지진 현장에서 유일하게 남아 구호활동 중인 선교사는 ‘한국사람의 교회’ 백삼숙 목사다. 백 목사는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 타바 지역에서 고아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을 운영해왔다. 현지 한인들은 아이티를 철수하고 있지만 백 목사는 차마 고아들을 떠날 수 없어 계속해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백 목사는 지진 피해 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비교적 안전한 가운데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국민일보는 전한다. 살인 추위, 살인 더위, 홍수, 지진, 쓰나미 등 근래 들어 지구는 아주 큰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마지막 때 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나라를 돌보는 일을 하나님에 교회에 주신 사랑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군 선교는 기쁨의 폭발”

20년을 군선교를 위해 헌신한 김용호 목사

김용호 목사는 1996년에 젊은 장병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30대 후반에 군 선교에 입문하여 이제 50대 초반에 들어서고 있다.

국가나 군대에서 물질적 도움 없이 지인이나 교회들의 선교비로만 운영되는 화랑교회의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김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오고 있다. 그동안 교회 성전건축과 장병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교전략으로 장병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다. 부대의 중요한 훈련 중 유격훈련과 혹한기 훈련시에는 위문품(빵과 음료수 조코렛)을 준비하여 훈련에 지쳐있는 병사들을 위로와 격려를 하며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3대 절기에는(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전 병력 초청 잔치를 열고 예배 후 2부프로그램으로 작은 음악회 그리고 3부에는 맛있는 한식 뷔페와 바비큐파티 등, 장병들을 교회로 유치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초겨울엔 감장을 하여 불우 장병들에게 감장 감치와 라면과 찜을 함께 지원하여 용기를 주고 있으며 또한 성탄절에는 1, 2, 3세대 격오지 중대안 예화부대까지 찬양단을 동원하여 9시간이나 부대차를 타고 돌면서 케익 접화 및 성탄절 케틀송을 함께 부르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해주고 위문품을 준비하여 개인에게 하나씩 전달하여 격려하고, 매년 예비아버지학교를 부대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 4회씩 열어 가정회복과 병영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장병들을 주축으로 해서 ‘라운제나’라는 위문팀을 창단하여 예하 부대들을 돌면서 위문공연을 열고 단원들이 매월 회비를 모아서 위문품을 사서 병사가 병사를 격려하는 국내 유일 무이한 팀을 이끌어 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군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순간 실수로 인하여 수감되어 있는 소년원원생들의 바른 육성을 위하여 정신교육, 예배인도, 출소자 상담 및 선도, 생일자 축하파티 등으로 12년 동안이나 원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의 가르침 대로 숨은 봉사로 청소년 육성에 헌신하고 있다.

이에 김 목사의 헌신에 고마움을 느끼고 공로를 인정하여 법무부 장관상을 받게 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황금 같은 젊은 나이에 군 선교와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젊음을 바친 김 목사는 ‘선교는 기쁨의 폭발’이라고 말한다.

그저 기뻐서 이 일을 감당해 오고 있다면서 나의 작은 섬김이 기독교에 대하여 목사님들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기독교 안티세력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키우는 일에 그리고 청소년들의 바른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한국미래포럼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2010년 새해를 맞아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사)한국 미래포럼 주최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박정하 장로(대전중앙장로교회)사회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박상근 장로(신석장로교회)가 기

도를, 오종하 장로(선화감리교회)는 히브리서 11:24~26절 말씀을 봉독하고 최병남 목사(예장합동 중경총회장)가 “참다운 애국애족”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특별기도에는 양병직 목사, 송영진 목사, 최석라 목사, 배재인 목사, 김윤기 목사, 이정우 목사

등이 나섰다.

아울러 김용호 목사, 홍종현 목사가 격려사를, 남태섭 목사가 축사했다. 김갑수 장로는 참석한 교계지도들과 기관장들,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광고에 이어 김석산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특강에는 김춘규 장로(상임

진행위원장)의 사회로 정종환 장관(국토해양부)이 강사로 나섰으며, 임현근 장로(신탄진그리스도교회)의 오찬기도가 있었다.

이날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세종시 유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세종시 특혜는 없었으며, 충청도민을 위한 유치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었고, 유치기업에 대한 특혜보다 유치를 위한 기업들이 자료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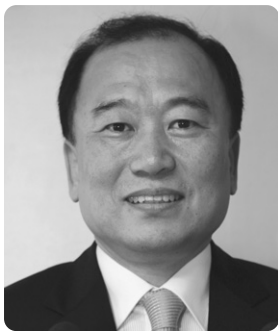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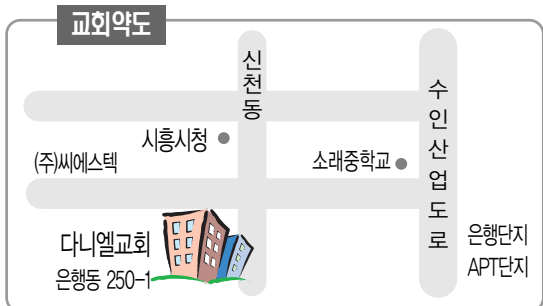
다니엘교회

표어: 말씀이 용하는 교회(눅 4:21)
오직기도, 오직전도, 오직예수, 오직믿음

하나님이...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단 1:17)



담임 고성규 목사



교회 031)313-3464, 312-2613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 원로목사 : 이 철 재 감독 (Bishop)
- 담임목사 : 이 정 민 목사 (Minister) www.scogop.net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절)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 배 안 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 [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 02-464-3107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 오종설 목사

잘 모이고
잘 배우고
잘 전하자!

0411634-0441 (사무실)
0411633-9146 (목양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담임 김동락 목사



문의: 031) 968-0199
교회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19번지

필리핀서 제3차 성경신학세미나 개최

제3차 필리핀 선교지 방문 및 성경신학세미나가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크리스탈교회에서 개최됐다.

한국크리스천신문이 마련하고, 총회 전도부, 강남노회 여전도회 및 권사회, 장안중앙교회, 광야의교회 등이 후원한 이번 성경신학세미나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30~40대의 현지인 목회자 11명이 참석했으며, ‘What is the Bible Theology?’(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박용기 목사(개혁총회증경총회장, 장안중앙교회)와 김규옥 목사(성경신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광야의교회)가 강론했다.

세미나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전 강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후 강의 등 하루 4시간씩 3일 동안 진행됐으며, 점심시간을 이용한 휴식시간까지 토론이 이어질 정도로 열기가 넘쳤다.

첫날 첫째 강의를 맡은 박용기 목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확증해 주었다.

김규옥 목사는 첫날 둘째 시간부터 목요일 마지막 시간 강론 때까지 구약 중에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성경신학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적극적인 질문과 코멘트가 이어져 강론을 하는 강사가 오히려 큰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총 12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가 참으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김목사는 특별히 둘째 날에는 세미나 장소에서 현지인 목회자들과 점심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중식 및 쉬

는 시간으로 배정된 2시간 내내 질의와 토론이 쏟아져, 말씀 깨달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세미나 마지막 날인 목요일(14일) 오후에는 강의를 마친 후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을 가졌고, 참으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나누는 기쁨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일요일인 10일 밤 마닐라에 도착한 선교단은 유명한 마닐라 베이에 눈 앞에 보이는 시내의 베이뷰파크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이어 월요일에는 마닐라 현지 문화에 대한 탐사를 시작, 전철과 지프니, 트라이시클 등 필리핀의 전통 교통 수단을 이용, 필리핀 최고의 명문대학인 국립 UP대학을 비롯, 부자마을에서 가난한 마을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는 마닐라의 구석구석을 방문했다. 특히 UP대학에서는 필리핀에서 성서배경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오부영 목사의 안내로 아시아센터 내 이슬람 연구소를 방문, 책임 교수와 환담하는 시간도 가졌다.



작은행복

파블로 카잘스처럼



파블로 카잘스는 첼로의 성자라고 불립니다. 그는 10살 때 호세 가르시아의 연주를 듣고 본 적도 없던 첼로 소리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는 평생 첼로와 하나가 되어 살았고, 첼로를 진정한 첼로로 만들어버린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카잘스가 바르셀로나 시립 음악학교에 입학하여 호세 가르시아에게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린 나이지만 <카페 토스트>라는 선술집 겸 도박장에서 연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카잘스의 연주는 급기야 그 선술집이요 도박장을 콘서트 홀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콘서트 홀을 성스런 교회당으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란 바로 선술집 같고 도박장 같은 세상을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한 콘서트 홀로 바꾸고 거룩한 예배당으로 바꾸어 놓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연>

<하루 한단 기쁨으로 영성의 길 오르기>
선으로써 악을 이기십시오.
선은 나약한 후퇴를 뜻하지 않습니다. <연>

산마루서신 제공

아시아의 기독교 - 경교(景敎)



조영길 교수
· 백석문화대학
· 본지 논설위원

고 넓이는 3.3척이 되는 비석으로 그 윗부분에는 십자가와 연꽃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는 대진경교유행중국비(大秦景敎流行中國碑)라고 새겨져 있다.

이 비석은 당의 덕종황제(德宗皇帝) 통치 때였던 781년에 세워졌는데 네스토리안 선교사들이 당의 2대 황제인 태종(太宗) 이세민의 통치시대였던 635년에 중국의 수도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네스토리안 그리스도인들의 선교를 시작하였던 635년부터 비석을 세웠던 781년까지의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는데도 이런 아시아교회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였던 서방세계의 지성인들인 라 크로즈(La Croze), 볼타어(Voltaire, 1694~1778)와 다른 사람들은 그 비석은 믿을 수 없는 위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서방세계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중국에서의 기독교 선교가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단으로 정죄하였던 아시아교회의 네스토리안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중국선교가 이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이 경교의 비석으로 확실하게 증거된 것이다.

경교비문에 아로펜(Alopen)이 ‘청운의 꿈을 품고, 성경을 지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험난한 길을 다녀와서 정관9년(貞觀九年, AD635년)에

장안에 도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장안에 들어온 선교단 일행은 황실의 도서실에서

예수회 선교사에 의하여 발견된 네스토리안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비석, 옛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인 서안부에서 발굴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하게 했다. 그리고 황제는 그의 숙소에서 성경공부를 했다. 태종황제는 선교단이 가져온 종교의 청명함과 진리로 깊은 감동을 받게 되어 황제는 그 종교를 선교할 수 있도록 특별명령을 내렸다. 아로펜주교가 인도하였던 선교단이 서기 635년에 당시 장안에 들어와서 3년동안의 성경번역과 공부를 하였던 결과로 638년 7월에 선교를 허락하는 칙령을 내렸다.

황제의 칙서에서의 아시아교회에 대한 평가는:

바른 진리들은 불변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으며, 성자는 불변의 장소에 머무르지 않는다. 가르침을 지역에 따라 백성들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다.

시리아왕국의 대주교인 아로펜은 먼 곳에서 성경과 성상(聖像)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수 도 장안에 봉헌하였다. 우리는 그 종교의 교리들을 연구한 결과, 거기에서 순수하게 훌륭 함과 자연스러움을 찾았다.

우리는 그 근원적인 자료를 연구함으로써 소중한 진리의 확립에서 나온 것을 알았다. 이 의 식은 어려운 표현에서 자유스러웠으며, 그 원리들은 그 체계를 잃어버릴 때에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에 유익한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西安市東新社拜堂, 景敎碑畫集 p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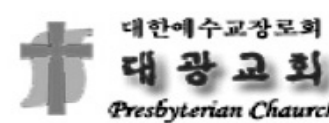
이렇게 당태종의 칙령으로 아시아교회로서 네스토리안교회인 경교(景敎)는 당의 국가적으로 공인된 종교가 되었고 장안의 황국의 서쪽의 서시(西市)에 가까운 의년방(義寧坊)에 국비로 대진사(大秦寺)라는 교회당을 세웠고, 경교의 21명의 선교사들에게는 국법으로 보장된 승려(僧侶)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

위에 기술한 비석의 발굴로 아시아 기독교의 역사와 신앙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당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아시아 전역에 미쳤던 기독교문화의 영향이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있는 놀라운 현실까지 알 수 있게 하여 과연 하나님은 “은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사54:5) 분이심을 증거하게 되었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예배안내			
예배	시간	장소	비고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30	본당	성경강해
주일부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열린예배
주일3부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특별예배로 들릴 수 있음
주일5부예배	주일 오후 4:00	본당	청년예배
수요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9:00	본당	철야기도회
각구역별예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구역별 요구가정	매월 마지막주는 연일예배

주일학교예배안내			
부서별	시간	장소	대상
유치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1교육관	취학전 아동
유년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1교육관	초등학교 1~3학년
소년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동급연령
고등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교생 및 동급연령
청년 2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24세 미혼
청년 1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5세이상 미혼



대광교회 담임 임영주 목사

451-06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09-10
TEL. 031-384-6826

서울에일신학 (사명자 수시모집)

- 신학과 - 사명(은사)자 학력/나이제한없음
- 연구원 - 신학교 졸업자(남,녀 목사안수희망자)
-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사 2급)
- 학점운영제, 학위과정(학사, 석사, 박사)운영

www.syeil.com
전 화 02)2293-0045
H · P 010-7405-9191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를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환영)

www.1004tv.net
전화 033)541-0687, 010-7405-9191

참 좋은 교회 를 소개합니다.

오산반석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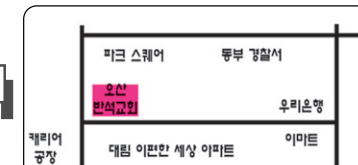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인성을クリニック하는 교회입니다.
4.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담임목사 : 김봉주

예 · 배 · 시 · 간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주중새벽예배	오전 05:3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9:20
수요예배	오후 7:30	WIWA영재교육	오후 1:00(토)
일파과정	오후6(주일)	중 · 고등부	오후9:30(주일)
디사이플스	오후 7:30(화)	청년부	오후 7:30(토)

찾아오시는 길



대천예수교장로회 오산반석교회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 031)378-9349 신양상담 : 010-2378-9349
http://www.반석교회.kr

삶을 변화시키는, 글로벌시대 인재양성 및 복음화를 위한

획기적인 말씀축복 [전도집중] [말씀집중] [독서집중] 특별집회

부활회 + 전도집회 + 재직세미나 + 교사세미나 + 수련회 효과

집회특징

- 모든 전도 프로그램, 교회성장 프로그램에 날개를 달아줌.
- 말씀으로 무장할수 있어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음.
- 목회전반에 큰 활력을 받음(전도, 기도, 설교, 교육)
- 전도에 자신을 갖게 되며, 헌신, 충성의 사람으로 변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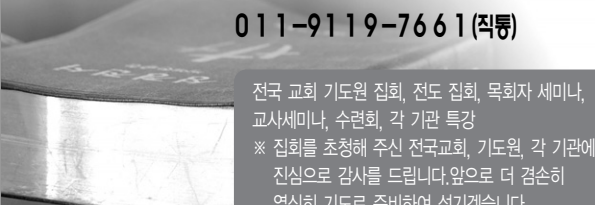
강사특징

- ♡ 확실한 동기부여
- ♡ 열정과 감동이 있음
- ♡ 삶의 희망과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함

주관 : 말씀사랑운동본부
후원 : 지저스 타임즈
집회유치문의 : 041)904-0675
011-9119-7661(직통)



강사 김동국 목사(합동) 말씀사랑운동본부장



전국 교회 기도원 집회, 전도 집회, 목회자 세미나, 교사세미나, 수련회, 각 기관 특강
※ 집회를 초청해 주신 전국교회, 기도원, 각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겸손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여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목회단상 ②

1992년 미국 LA에서 일어난 흑인들의 폭 동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때 있었던 일입니다. 흑인 소년 파쿠미와 한국인 슈퍼마켓 주인간의 아름다운 관계 이야기입니다. 이날 흑인 폭동 때, 한국인 상점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한국인 슈퍼마켓 주인 역시 상당한 피해를 보았는데 그레도 남은 물건을 정리해서 장사를 하려고 상점 문을 열고 들어온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흑인 소년 파쿠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데 눈물을 툭 툭 흘리고 있었습니다. 상점 주인은 이 흑인 소년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 소년과 상점 주인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년 전입니다. 어떤 날 상점에 파쿠미가 물레 들어와 커피와 주스를 훔쳐 나가다가 붙잡혔습니다. 그 때 이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아빠가 아파서 누워계시는데 따뜻한 커피를 끓여 드리고 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경찰에 넘기려다 이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어서 빵과 주스, 커피를 주어 보냈습니다. 며칠 지나 이 소년이 웃으면서 상점에 나타났습니다.

아빠가 오늘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저씨를 도와 드리고 싶어요. 그때부터 소년은 이 상점에서 하루에 3달러 또는 5달러를 받고 일을 하면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점 주인은 이 이야기를 조선일보에 기고하면서 미국에 오는 이민자들이 인간관계를 잘해야 할 것을 주문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사람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관계를 잘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3가지로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조영길 교수
· 백석문화대학
· 본지 논설위원

우리는 예수님과 또 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은 자연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사회는 따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해왔기 때문에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를 강조하다보니, 사람과의 수평관계에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수평관계인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잘 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이하여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거부할 때, 예수님은 발 씻김을 거부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감동적인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또 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 계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은 자연과의 관계를 잘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라. 즉 관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연 즉 우주만물은 인간의 관리아래서 생존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의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는 우리 인간이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괴한 데서 온 결과입니다. 인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었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나라...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 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발을 간쯤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잠31:10, 13-17, 18, 20)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우리말로하면 대표적인 “현모양처(賢母良妻)”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전형적인 직장여성으로서 나름대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한마디로 비범한 여인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여인을 재능이 뛰어난 여인이라 하지 않고 “현숙한 여인”, 즉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재능은 선천적인 면이 강한 선택적인 좁은 문이지만 지혜는 사실상 누구에게나 개방된 넓은 문이다. 이 현숙한 여인의 특성은 무엇일까?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이 여인의 삶을 해부해 보자!



황성주 박사의 "성경 건강학" ⑩

부지런한 자가 아름답다

한마디로 잠언의 이 여인은 생동하는 아름다움을 지녔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지만 구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다.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다. “부동(不動)의 미(美)”란 정체와 변질의 우려가 높다. 미의 개념에 “역동성의 우너리”가 빠진다면 질풍발이가 될 것이다.

게으름은 질병이나 추함과 가까운 반면 부지런함은 건강과 아름다움의 이웃사촌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한 여인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은 자명한 것이 아닐까?

또한 여인은 자기관리에 뛰어난 역량을 가졌다. 바쁜 스케줄 중에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꿀 줄 아는 슬기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건강하지 못하면 부지런할 수 없는 법, 삶의 구축구석에 나름대로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가 번득이고 있다고 하겠다. 부지런하고 활기찬 삶을 사는 여인은 건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잠언의 여인은 “아름다움”과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비결을 체득하고 있는 여인인 듯싶다. 오직 “부지런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동기의 윤리만을 가지고는 안된다. 특히 여성들에게서 “동기는 좋았는데...”라는 변명을 많이 듣

는다. 상당수의 직장여성들이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일에만 집착하고 막상 일 처리에 있어서는 여성에 대한 시각이 관대한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결과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자세가 절실한 시대다. 잠언의 여인은 동기의 윤리뿐 아니라 책임의 윤리에도 아울러 익숙해 있을

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어느 병원에 의사들조차 만만히 대할 수 없는 한 간호사가 있었다. 병원에 근무하지 얼마 안되는 신출내기인 그녀는 한마디로 성실, 그 자체였다. 그녀는 발로 뛰는 타입이었고 항상 진지했다.

매사에 현장 확인주의였기 때문에 주위의 신뢰를 한 톨에 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다른 학과에 입학했다가 뜻한바 있어 2학년때 휴학을 하고 다시 시험을 치루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백의의 천사”의 꿈을 이룬 탓일까?

그의 부지런하고, 성실, 근면한 태도는 바로 잠언서 31장에 나타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 그대로 였다고 한다. 어느 목사님의 부인이 되어있다는 그 여인처럼 부지런한 여인은 항상 아름답다.

잠언31장의 여인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가정이라는 직장만해도 힘든 판에 자기 사업까지...? 어찌지 현실을 추월한 학문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다발이 아닌 점진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오히려 자연스런 결과일 수도 있다. 즉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다보면 관심의 폭이 넓어지면서 생활권이 확대되기 마련이다.

기회는 항상 부지런한 사람의 편에 있을

(지난호에 이어서) 우울증의 원인 이론 중 [유전적 요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이나 통계에 항상 등장하는 또 하나의 유전전개방식은 “가족 중에 우울증이 있는 경우, 그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이를 뒷바침 해주는 연구의 결과로 쌍생아 연구, 가계 연구, 입양아 연구 등을 통해 우울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적 요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론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쌍생아 입양아 혹은 특징적인 사람들의 가계 연구에서만 이론적인 견본(sample)을 추출해내는 저의 는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위에 언급한 사람들의 경우는 일반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더하다.

만약 유전적인 원인을 연구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이론들이 실체라는 것을 믿게 만들려고 한다면 세상에는 건강하게 사는 일반인들이 더 많이 있고 또 일반인들 속에서도 이러한 유전학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어느 특



김주원 박사
본지 상임운영이사

정한 그룹(group)을 모델로 하여 견본(sampling)을 한다는 것은 연구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알코올 중독자 자녀가 나온다는 이론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만 sampling을 한다면 결국은 그 이론대로 되고 만다. 하지만 아버지가 비록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지금은 정상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조사를

건강칼럼 지난호에 이어

우울증은 결코 병이 아닙니다!Ⅶ

한다면 당연히 이 이론은 사장되어 버리고 마는 이론이 되는 것이다.

특정 sampling을 통한 연구는 합리성과 객관성에서 뒤떨어지는 연구결과이며 이러한 것은 학문적인 연구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행할 수 있는 가설에 불과한 것이다.

유전적이고 사회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가 원인이 된다면, 또 그러한 것들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치료하는 치료방법은 과

연 무엇인가? 학자들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마다, 모두 저마다의 이론을 말하지만 만약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정신과의사들이 말하는 정신병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죄 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유전적으로 흘러내리는 가계에 있는 유전자

의 요소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바뀌는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뀌어진 유전자의 요소가 계속 유전되는가 아니면 다음 세대에 다시 옛날의 정신병적인 유전자 요소가 나타나는가?

아직 아무도 분명한 증명과 정립되어진 믿을 만한 학문적 통계나 정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가설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테스트 하는 것은 사람을 들을 만드신 조물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우울증의 원인 이론 중에 [신경내분비와 신경생화학적 요인]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역시

같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동이 정서 장애를 일으키고, 세로토닌, 도파민 등 신경전달물질과 성장호르몬 등의 호르몬이 우울증 환자에게서 이상 소견을 나타낸다” 라고 말을 하지만 누구 하나 분명이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

그저 “그럴 것이다” 혹은 “그렇다고 배웠습니다” 또는 “그렇다고 책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야에서 연구 중 입니다”라는 말 밖에는 하지 못한다.

아직 연구중인 분야나 혹은 가설적인 이론을 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화학약물을 투약하면 환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상담윤리 혹은 의료윤리에도 저촉이 된다. 물론 약품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용되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약품을 처방하는 사람이 분명한 학문적인 이론이 아니라 가설에 근거하여 약을 처방하고 투약시킨다면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지 않을까?

매주 수요일 연속 무료 성막 특강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명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재진 목사는 2개월 전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1동601-54에 소재한 도봉 그리스도 교회 (담임 김미경 목사)에서 연속 성막 강의를 통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시행되는 이 강의는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성향을 이룰 것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큰 은혜속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명교회 정재진 목사 (연락처:010-6204-7358)

대한예수교장로회 조치원장로교회



담임목사 박복수



- 부목사 : 김 장 성
- 전도사 : 정 원 식
- 원로장로 : 류 영 근, 강 천 기
- 은퇴장로 : 나 세 영
- 이배은퇴장로 : 이 두 길, 정 성 형
- 장 로 : 유 의 식, 김 준 중, 김 상 경, 이 운 근, 전 은 구, 김 만 용, 정 건 오
- 지 휘 : 임 대 양, 최 효 숙, 강 정 일, 장 선 희, 유 정 근
- 피아노 : 강 정 일, 임 사 라, 윤 태 립, 전 보 립, 김 현 경, 이 종 온

생활목회 : 남매다 성경읽고 항상일고 기도하며 주일성수함시다.

심일초 생활로 숙제받고 전도에 힘입시다.

지역행사 : 한복노인대학(수요일) / 무로잡(수, 금요일) / 이 마을 무로잡(수) / 장미꽃 지킴

사랑의 연탄나눔기 / 조치원 마을 도서관 운영

후원계좌 : 예금주:조치원장로교회

농 행 455041-55-000317

예 배	시 간	교 회 학 교	시 간
대 예배	1부 주 일 오전 9:00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2부 주 일 오전 11:00	유 년 주 교	주 일 오전 9:00
주 일 오후	주 일 오후 2:00	학 생 회	주 일 오전 9:00
수요일저녁	수 요 일 오후 7:30	청년 - 대학부	토 요 일 오후 6:30
새벽기도회	매 일 오전 5:00		
심야기도회	금 요 일 오후 10:00		

TEL : 041) 865-1301 FAX : 041) 864-8255
교역자실 : 041)865-1302 충남 연기군 조치원을 평리 6-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천성교회



예배모습 담임 권세능 목사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구 분	시 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예배	오전 9:0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금요 철야 기도	저녁 9:00	청년회모임	토 저녁 8:00

451-806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신궁리 245-4
☎. 031)656-5830
H · P 010-8585-9137

대한예수교 장로회 핵심교회
www.haeksim.net

Tel. 02)430-9107
Fax. 02)401-7954

서울시 송파구 거여2동 251-42호
(효성아파트 205동 앞)



이 선 목사

예 배 안 내		
기 관	시 간	장 소
장년부	새벽 5:00	대예배실
	1부 주일 오전 7:30	
	2부 주일 오전 9:00	
	3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00	
	금요일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안내		
기관	시 간	장 소
유치부	주일 오전 9:00	유치부실
유년초등부	주일 오전 9:00	어린이성전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주일 오후 3:00	중고등부실
청년부	토요일 오후 7:00	제1교육관
셀장대학	금요일 오전 10:00	제2교육관
새벽예배	매일 새벽 5:00	대예배실

웨신 경천노회 신년하례회 및 단합대회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경천노회(노회장 장창운 목사)2010년 신년하례회를 지난 1월 12일(화)오전11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소재 방주교회(김영중 목사)에서 부부동반으로 모인 목회자들은 사랑과 화합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며 뜻 깊은 시무식을 가졌다. 노회장 장창운 목사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부노회장 전동웅 목사 기도, 증경노회장 지영철 목사가 “인생의 기하학”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증경노회장 이원석 목사 축도로 마쳤다. 2부에서 삼삼오오 둘러 앉아 목사와 사모 등이 축하대회를 가져 화기애애한 가운데 마쳤으며 노회장 장창운 목사는 준비한 선물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서울시민을 위한 신년조찬기도회

서울시민을 위한 2010신년조찬기도회가 지난 22일 오전 7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서울특별시 교회와 시정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기도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서울시 25개구 구청장과 구 관계자들, 교시협의회 회장 안경철 목사와 회원들이 자리를 같이하고, 평화통일과 나라와 민족, 서울시민의 안녕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했다. 이날 임종근 목사는 느헤미야 6: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리더의 영향”이란 제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진정한 리더는 예수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본받아 청지기적 사명과 목자적인 사명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을 “봉사와 나눔 정신으로 시민을 섬기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며 “어려움을 긍정으로 이겨내며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양병희 목사는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난국을 극복하고 사회에 빛을 전하는데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새벽 서울시민을 위한 2010년 조찬기도회를 통하여 훈훈한 덕담을 나누면서 화기애애한 자리가 됐다.

장창운 기자(up@ws21.kr)



약물재활복지학회결성기념학술세미나 가져

인류의 약물중독 치료재활 문제에 기여하는 계기 기대
제도적 위기체제 하에서 사회복지제도의 필요성 역설

지난 23일(토)오후 2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1501호에서 김도형 목사(한국나약 사무총장)사회로 약물재활복지학회결성기념학술세미나가 개최되어 주일경 박사(한국나약 대표, 원광디지털대학교 약물재활복지학과장)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성시종 총장(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의 격려사, 박영률 박사(한국교회복지선교연합회 이사장, KNAADAC 교육분과위원장)가 축사를 나눴다. 이날 김도형 목사(KNAADAC 사무총장, 기독교국제금주학교 대표)는 “알코올 중독 가정 문제 및 중독 환자 치료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다루어졌으며, 신양호 목사(한국 중독 재활복지협회 12단계 치료 공동체장)는 “12단계 집단 단치료가 알코올 의존자의 재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강의했다. 김주원 박사(한국 성경적 상담가 협회 대표)는 “항정신성약물의 위험과 약물의존에 대한 성경적인 비고”에 대해 다루면서 항정신성약품과 약물의존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가에 대해 지적했다. 김 박 사 가 저 술 한 내 용 을 www.jntv.kr JTN방송과 지저스타임즈(기독교신문)에 연재되고 있어 항정신성약품과 약물의존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다

루고 있다. 정운종 목사(ASCI/ 365 행복 상담소 소장)는 “인성훈련을 핵심대안으로 본 청소년상담”에 대해 강도 높게 다루었으며, 이요나 목사(한국 성교육 상담자협회 대표)는 “성 정체성과 관계중독”에 대해 강의했다. Pamela Slaughter Weeks (Creator of Pam and Buffy “You are Special”), 소개와, 김종일 신부(원광디지털대학교 약물재활복지학과 졸업생, 생명의 땀 나눔센터장)는 “사제로 본 경제적 성격장애”이중 성격장애자로서 약물 의존자를 이해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 전에 대해서 다루었다. 또 이상근(원광디지털대학교 약물재활복지학과 졸업생, 새누리교회 목회상담실장)은 “알코올 의존자 가족의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P 씨의 가족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이시연(원광디지털대학교 약물재활복지학과 졸업생, 한성대학교 유아교육 석사과정)은 “놀이지도”약물이 유아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성국(원광디지털대학교 약물재활복지학과 졸업생, 한담 영어 학원 원장)은 “제도적 위기 체제하에서 사회복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다루었다. 또 임근형(원광디지털대학교 약물재활복지학과 졸업생, (주)만년



시티 대표, 평생 교육사 (주)LS전선 환경안전담당 교회학교 부장)은 “청소년 약물남용 문제를 중심으로 한 약물남용 예방교육과 관련 법률의 문제”에 대해, 장민기(원광디지털대학교 약물재활복지학과 재학생, 마약 경험 회복자)는 “약물재활복지학을 이해하는 또 다른 시각”에 대해서, 박영선(원광디지털대학교 약물재활복지학과 졸업생, 부산대학교 NGO학과 석사과정)은 “청소년 약물남용의 심각성 및 재활교육의 필요성”대해, 최정미(원광디지털대학교 약물재활복지학과 재학생, 기독교국제금주학교 사무국장, 한국나약 총무)는 “cits 알코올 환자 상담, 교육의 실제”등의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서 많은 이들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김도형 한국나약 사무총장은 인사를 통해 “많은 사람의 관

심 밖에 있는 약물 중독 자, 재활 복지에 관련된 학술 세미나에 대해 소개하고 지금 우리는 약물 중독 자 100만 명, 알코올 중독 자 600만 명(주부 50만)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약물 중독 재활 문제는 경제문제나 교육문제 실업문제 등등, 눈에 보이는 현안문제 등에 가려져 몇 몇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문제가 되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했다. 분명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자기 집안(친척)에 한명 정도 이상 정신병원을 보내야 할 만큼 심각한 약물/알코올 중독자가 있음에도, 극히 자기 집 사정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약물중독 문제나 재활 문제에 있어 정부에서조차 수

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실에 있어 전문가로 일 할 사람이 없고, 또 한 미래 약물중독 치료나 재활에 대한 연구도 미진한 편이라고 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약물 중독 치료 재활 상담 교육 전문 국제기관인 한국나약과 원광 디지털 대학 약물재활복지학과, 그리고 20년 경륜을 가진 기독교국제금주학교가 먼저 협력하여 이런 약물재활복지학회 결성 기념학술세미나를 가지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전국에 약물중독 치료 재활과 관련된 기관들과 협력하여 21세기 약물 중독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인류의 약물중독 치료 재활 문제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을 전했다.

민복은 2010신년하례식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이하-민복은)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소재 성복교회(총재 이태희 목사 시무)에서 2010년 새해 신년하례회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노베드로 목사 사회로 예배가 진행되었으며 정인찬 목사(국제대표회장, 백석대학교)가 “목회 환상”이란 제하의 말씀을 전하고, 총재 이태희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임성은 목사(사무총장, 해뜨는교회)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 특별기도회, 하례식, 신년 덕담, 구호제창 등이 있었으며, 이 총재를 비롯 대표 임원들이 케익커팅과 아울러 악수례를 가졌다.



서울홀리클럽 목요집회, 101세 방지일목사 말씀선포

서울홀리클럽 목요집회 101세 방지일 목사 말씀선포 서울홀리클럽 회장 최공열 장로 사회로 목요기도회가 시작되어 전영신 권사가 대표기도를 하고, 명성 핸드벨 팀과 서울홀리클럽 여성중앙단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이어 방지일 목사는 “니느웨의 총동원 회개”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대표회장최공열 장로는 10여 분간 통성으로 기도를 인도하고, 양인평 장로의 인사의 말씀이 있었다. 아울러 총무



임영수 집사의 광고에 이어 방 지일 목사 축도로 마쳤다.

피종진 목사 2월 국내 · 외성회 일정



피 종 진 목사

- 1.31(주)~2(화) 서울 시온성교회(임후자 목사) ☎(02)834-4868 제157차 해외성회(157th Overseas Assembly)
- 4(목)~ 7(주) 뉴질랜드(New Zealand) 소망교회(박노영 목사) ☎(649)480-8687
- 8(월)~11(목) 호주(Australia) 지역 연합성회
- 12(금)~13(토) 부산 JSTV 선교센터 위성방송성회(이사장 피종진 목사, 사장 이종문 목사) ☎ 010-9549-1701
- 15(월)~18(목) 광명 생수기도원(원장 윤순덕 목사) ☎(02)2683-4202
- 18(목) 오전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훈 박사) ☎(02)2067-4500
- 18(목)~19(금) 부천 중앙명성교회(신미라 목사) ☎(032)344-3313
- 19(금) 오후 총회연합신학(이사장 이화평 목사, 학장 박종두 목사)
- 20(토) 오후 부천 축복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 22(월)~24(수) 강릉노회 남강릉시찰회(시찰장 김성배 목사) 연합성회
- 장소: 강릉제일교회 ☎(033)646-7797
- 25(목)~27(토) 원주 열린문교회(신보라 목사) ☎(033)733-0110
- 27(토) 오후 국제총회선교신학교(학장 피종진 목사, 이사장 박명순 목사) ☎(031)968-9191
- 27(토) 저녁 서울 뱀열교회(박태남 목사) ☎(02)923-6481
- (재)세계복음화협의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고영기 목사)
- 28(주)~3.3(수) 상주 청리교회(김재원 목사) ☎(054)533-1611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www.nasca.or.kr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번지
교 회 : (02)3411-9191, FAX : (02)3411-9111
목사관 : 010-5255-7777, FAX : (02)401-7770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만나교회



담임목사 조광표

웨스트민스터 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학장 : 조광표 박사(D.D.) 연구원 원장 : 모상련 박사(Th.D.)
530-03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 061)242-1617

“복지사업은 하나님의 명령”

행복의 집 원장 곽동훈 목사



원장 곽동훈 목사 약력

- 〈학 력〉
- 수도신학교(합동측)졸업
 - 개혁신학연구원
 - (개혁신학대학원대학교)졸업
 - 총회신학대학원박사원수로
 - 임상목회연구원 수료
 - 세계사이버대학 졸업
 - CCU대학(대학원)졸업
- 〈경 력〉
- 전,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복음선교)총회장
 - 서울예일신학 학장
 - 행복의집 원장
 - CCU대학객원교수,
 - 요양보호사 전임교수
 - 사회복지학박사
 - 명예신학박사
 - (주)JTNT방송 WWW.JTNTV.KR 지저스타임즈(기독신문) 운영이사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 교육교사1급,
 - 가정폭력상담사
 - 성폭력상담사,
 - 건강관리사
 - 케어복지사 1급(민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동년 12월 노인 의료복지시설 신고를 받았다. 2010년 현재 20여 명의 환자들을 복지시설에 모시고 사역하고 있다.

원장 곽동훈牧사는 복지시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한 가족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기에 초심 잃지 않고 오직 이 길을 가리라고 몇 번이고 다짐한다.

때론 치매로 인하여 대소변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례를 하고 인분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방바닥과 벽에 그림을 그리는 가하면, 어떤 이는 먹기도 한다.

그리고 그 인분 냄새는 코를 찌르다 못해 역겹기도 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이 냄새까지도 향기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 이후로는 그 일을 하면서도 궂은일이란 생각이 들지 않고, 인분 냄새도 향기롭게 맡을 수 있었으며, 손으로 만질지라도 역겹지 않았으며, 사역에 전념하고 있는 원장 곽동훈 목사님과 봉사자들이다.

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환자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과 복지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기원했다.

그는 또 21세기는 복지사회이며 복지의 기본은 노인복지라고 말한다. 실질적으로 현 사회는 노인 분들과 노인복지를 소외시키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복지를 말하면서도 노인복지가 소외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복지의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곽 원장은 지금의 어르신(노인)들은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분들인데 하지만 지금에 와서 아동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도 노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데 실로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다.

이러한 안타까움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기도도 준비해 왔으며, 마침내 그 뜻이 이루어져 복지사회건설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1998년 9월에 “행복의 집”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복지사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명령이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눅10:37, 마25:31~46, 약2:14~17, 약1:17절)등을 들어 사역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행복의 집”시설에는 현재 각종 질병 치



우리사회 복지수준 아직 걸음마 단계 중풍으로 고통받는 자 위해 ‘1004’ 운동 전개

매, 중풍, 암, 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20여 명이 함께 “우리는 한 가족, 서로 사랑하라”는 원혼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또 원장 곽동훈 목사는 인터뷰에서 전국에는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처럼 가정에서 어른을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면서 최선을 다하여 가족처럼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행복의 집” 설립목적

또한 가정에서 환자로 인하여 고통 받으며 모시기보다는 “행복의 집” 시설에 모시는 것이 효과할 수 있는 체계라고 했다.

아울러 원장 곽동훈 목사는 “행복의 집”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 ① 노령화 시대에 가정에서 보호하기 원하나 병원 등 법인시설 등에서 보호의 손길이 부족하여 소외되고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드리기 위한.
- ②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 ③ 24시간 어르신들을 시설에서 보호함으로써 생계유지 및 노후생활보장.
- ④ 최대한의 의료 서비스 및 재가복지서

비스 등을 직, 간접으로 전달하기 위함.

천사(1004)도우미

사랑하는 마음속에 또 하나의 사랑이 싹트고 있다. 영생 얻는 길과 천국은 내 것으로 소유하는 비결에 대하여 눅 10장 37절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우리가 되어야 영생을 얻으며, 마 25장 31절~46절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은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한다고 하였다.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본 행복의 집에서는 치매, 중풍 등 각종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수고할 천사(1004)도우미(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 내역

- 미용, 목욕, 세탁, 주방, 청소, 말동무 등
- 재가(가정, 노숙자를 위한 식사배달) 봉사



노인의료복지시설 행복의집 원장 사회복지사 곽동훈(순종)목사
대표전화 : 0502-118-1004, FAX : 0502-139-1004

칼럼

尙武館은 살아 있는가?

상무관(尙武館) 그 이름은 언제 들어도 좋은 이름이다. 독수리는 맹금류로 혁혁한 맹위를 떨치며, 공격시에는 구십 도의 빠른 속도로 짐승을 낚아채는 날짐승의 제왕이다.

8.15 해방과 동시 정부는 수립되고 사회는 혼란스런 시대에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안을 상징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안을 받아 임무를 수행 하였다. 경찰모자의 마크는 독수리와 무궁화 꽃으로 치안을 상징한 것이다. 국민의 적을 단호히 강한 독수리의 발톱으로 처치하자는 것이다. 6.25 전쟁과 더불어 수많은 크고 작은 국가 혼란속에 맹위를 떨치는 독수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적을 처치하고 치안을 하다가 많은 경우들이 희생 되었다. 경찰의 힘을 길러준 상무관은 태권도, 유도, 검도장으로 많은 땀을 흘린 도장이다.

왜정 시대의 건물양식으로 높지 않은 평평한 지붕위의 통풍설계와 반지하의 통풍구와 도장의 내부는 약400평의 건평과 넓은 뜰계단의 출입구와 많은 유리 창문으로 밝은 실내로 복층의 넓고 높은 천정은 좋은 경관을 주며 반들반들한 마루는 태권도 와 검도장으로 튼튼한 매트는 유도장으로 가장 잘 만들어진 경찰의 도장이다.

상무관이라는 명명한 사람은 누구인지? 6.25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잠시 대전 피난시 행정부로 사용된 시기로 상무관의 힘 있는 붓글씨 간판은 강한 독수리 훈련장으로 손색이 없다. 필자도 45년 전에 이곳에서 검도를 하면서 땀 흘리기에 게을리 하지 않던 기억이 새롭다.

당시의 사회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무도 경찰을 선정하여 강력범을 제어하며 특별히 간첩 소탕 검거에 진력 하였다. 지금부터 지나간 10년에는 간첩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다. 과연 간첩은 없어서 그랬는지. 그 이전에는 반공을 국시로 삼고 독수리의 눈은 부릅뜨고 낚아채었는데! 왜 간첩은 소리 없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독수리가 긴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는지, 마음에 자문해 본다.

상무관에서 그 토록 혹독한 땀을 흘리며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사랑하는 경우 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상무관을 바라보며 궁금하여 지나다가 옛날을 생각하면서 들어가 보았다. 필자는 옛 동료들이 땀에 젖은 도복을 입고 있던 모습을 생각 하면서 쓸쓸한 마음으로 상무관 계단을 내려 왔다. 상무관이 왜 조용할까?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패기 있는 기합 소리와 죽도의 부딪치는 소리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상무관을 나와 길을 가면서 너무도 아쉬운 마음을 달래지 못하였다. 그러나 상무관은 살아야 한다. 맹위를 떨치는 소리가 멈추어서는 안된다. 독수리는 기세가 꺾일수 없다. 적을 발견 하면 맹공으로 낚아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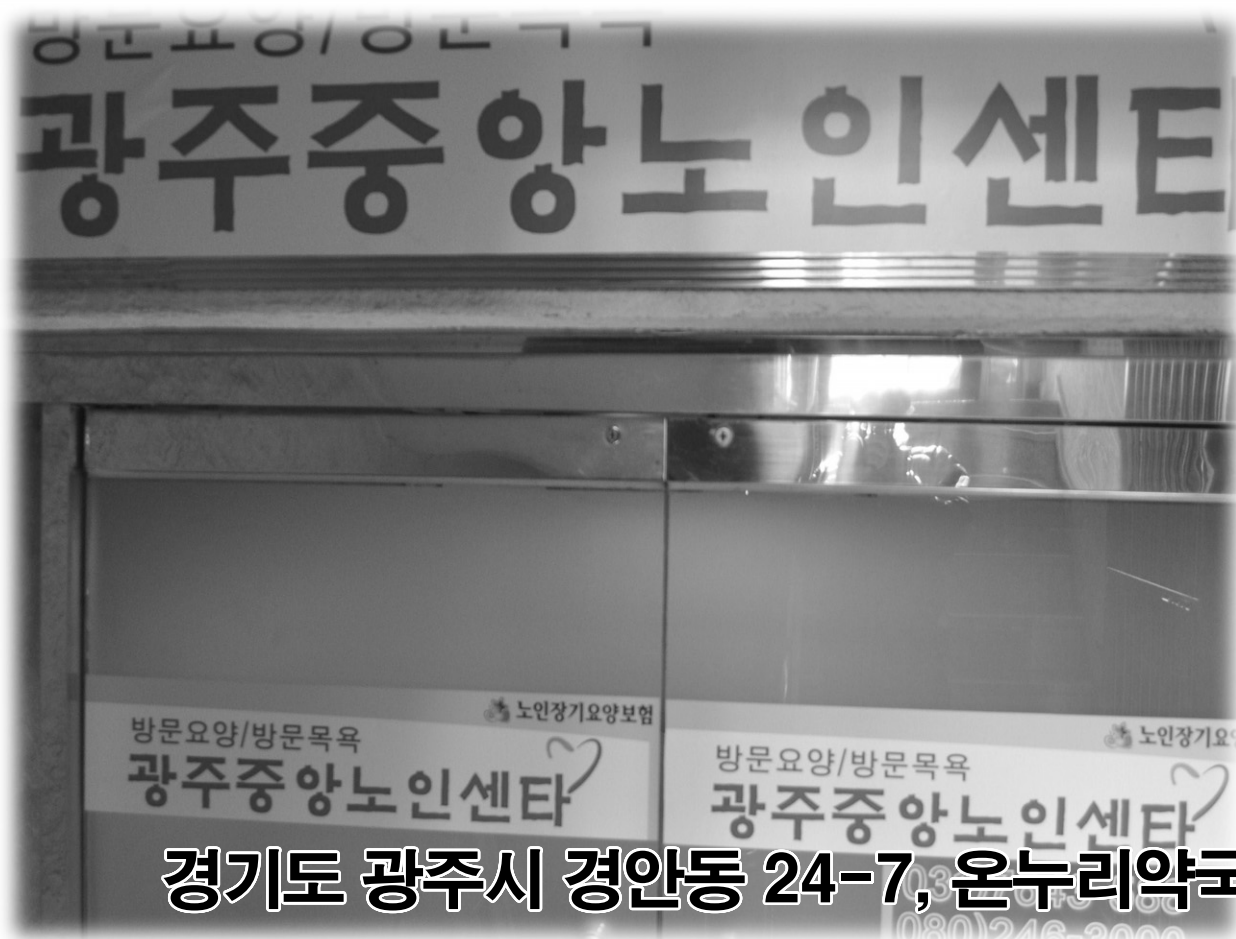


야 한다.

어느 날 경찰마크를 보았다. 날카로운 독수리 부리와 눈이 있으며 활짝 핀 무궁화 꽃 이것이 경찰마크인데 독수리 목에 저울추가 있는게 아닌가, 누가 독수리 목에 저울추를 달아 주었는가? 저울추는 재판관을 상징하는 마크인데 왜 독수리 목에 저울추를 달아 주었는지? 독수리 목에 저울추로 인해 무거워서 고공 비상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독수리는 오직 독수리 일 뿐이다.

독수리 목에 저울추는 있을 수 없다. 모든 범죄의 판단은 저울추를 가진 재판에서 할 일이다. 상무관은 강한 독수리를 훈련하는 도장이다. 맹공에 실패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 10년 기간에 독수리에게 누가 저울추를 달아 주었는지, 이것은 작은일이 아니다. 상무관은 아픔있다. 그래서 상무관은 영원히 살아 있어야 한다. 활기차게 창공을 날으며 내일의 밝은 치안이 되도록 한다. 독수리의 목에 저울추를 달아서는 안된다. 독수리는 비둘기가 아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는 입간판을 생각해 본다. 자원 봉사는 일반 행정부서 나 민간 조직단체에서 얼마든지 하고 있다. 독수리는 독수리의 사명만 하면 된다.

방문요양 · 방문목욕...광주중앙노인센타



대표 방성원 장로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24-7, 온누리약국 지하 101호, (031)7643-588, 080-246-3000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물댄동산교회’

말씀중심의 목회... 물댄동산교회 송미순 목사

“일어나라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향해 달려가자”

영혼구원을 외치며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물댄동산교회 담임 송미순 목사, 그는 오랜 기도 끝에 2010년 새해를 맞아 영광 제일교회에서 물댄동산교회로 명칭을 바꾸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파워 넘친 목회, 영력 있는 목회, 말씀중심의 목회자로 우뚝 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송 목사는 “일어나라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향해 달려가자” 목표를 정하고 앞도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 살리는 사역에 이 한 몸 바쳤다고 말한다.

▶ 강력한 리더십으로 교회가 부흥성장 하고 있는 비결은?

☞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가 좋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이 길을 택했습니다. 사실 주의 일

을 하면서 최고의 보고의 열쇠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에게 파워 넘치는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강단을 365일 거처로 삼고 있습니다. 강단은 밤새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소이며, 숙소이기도 합니다. 밤새 기도하고 새벽이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부흥집회를 자주 나가는 편인데 집회를 인도하는 것도 역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 각종 환자들에 문제를 해결 받고, 각종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요, 최고의 보고창고를 여는 열쇠요, 교회가 부흥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 집사 시절에 암으로 죽음을 앞둔 상태였는데?

☞네, 암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6년 전 일입니다. 그때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암으로 망신 창이가 되어 힘이 없고 지친 몸을 살려달라고 날마다 옆으로 누워서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하루 4-5시간을 매달리며 기도드릴 때 갑자기 온 몸이 강한 전율을 느껴오는데 그 순간 성령의 불



이 임한 것입니다. 암병에서 치유되고 해방된 것입니다. 사실 그때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암병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치료함을 받았다는 당사자인 제가 많은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도 많았습니다. 신학도 안한 집사가 환자들에게 기도해 준다는 것이니

▶ 결국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한다면?

☞네, 신학교를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요. 또한 돈도 없었구요. 신학을 해야한다는 권면을 많이 받았지만 한사코 거절했었구요, 그렇게 3년을 고집만 부리다가 잘 알고 지냈던 전도사가 찾아와 신학교를 갈 수 있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어서 신학을 하고 마침내 신학교를 졸업했고, 2002년 8월 15일 목사임직을 받았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전도사입니다.

▶ 영광제일교회를 물댄동산교회로 개칭을 하셨는데 목회계획에 있어 어떠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오직 예수”, 목회의 목적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
선교센터 건립, 인도에 교회 설립 등 목회 계획 수립

있습니까?

☞네,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 물댄동산교회로 개칭을 한 것은 목회계획에 있어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58:11절의 말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주리지 않는 축복이 영육간의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같은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권 영권 인권 물권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사업이 열리며 물권이 열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충만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온 성도가 일심으로 하나 되어 선교와 구제와 헌신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복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댄동산교회 목회계획은 1.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2. 뜨거운 성령의 불의 역사를, 3. 신권 영권 인권 물권이 열려지는 축복을, 4. 각종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5.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며,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 6. 힘이 넘쳐나는 행복한 교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목회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또한 목회계획 중에 하나가 선교센터를 짓는 일, 인도에도 교회를 몇 개 세우는 것입니다. 국내 선교도 중요하기에 약한 교회를 몇 곳 돕고 있고, 저의 마지막 소망은 중,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영성훈련은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찬양 훈련, 말씀으로 복을 받고, 찬양으로 열고, 기도로 뚫고 나가고,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교회로 공동체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 2010년에도 부흥회 일정이 전국적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2010년도의 좌우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똑같습니다. 2010년

● 물댄동산교회의 표어

- 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60:1)
- ② 축복받은 한해(신1:8)

● 목표

- ① 하나님 영광 중심의 삶
- ② 성경 말씀 중심의 삶
- ③ 말씀과 은혜 중심의 삶
- ④ 성령 충만 중심의 삶
- ⑤ 기도 중심의 삶

물댄동산교회: 담임 송미순 목사

☎(031)765-9826, 010-9006-9155

도 역시 “오직 예수”입니다. 목회의 목적도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과 사역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로 매달리자 사형선고를 받은 압병에서도 주님을 만나 살았았으며 지금 주님의 은혜가운데 목회자가 되어 부흥회를 인도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오직 초지일관 목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사역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를 것이며,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할 것입니다. 오직 일관된 신앙으로 전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물댄동산교회
Mul Daen Dong San Presbyterian Church

표어 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60:1) ② 축복받은 한해(신1:8)
목표 ① 하나님 영광 중심의 삶 ② 성경 말씀 중심의 삶
③ 말씀과 은혜 중심의 삶 ④ 성령 충만 중심의 삶 ⑤ 기도 중심의 삶



물댄동산교회: 담임 송미순 목사

☎(031)765-9826, 010-9006-9155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



1.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남
2. 뜨거운 성령의 불의 역사
3. 신권 영권 인권 물권이 열려지는 축복
4. 각종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5.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며,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
6. 힘이 넘쳐나는 행복한 교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예배 시간 안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08:00
주일오후예배	오후 02:00	학생예배(토)	오후 05:00
수요일예배	오후 0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05:30
목요찬양치유집회	오후 08:00	8시기도회(매일)	오후 08:00

찾아 오시는 길



한기여총, 신년하례회 및 세미나

한국기독교 여성총연합회(대표회장 권영자 목사)는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소재 동해 콘도에서 2010년 신년하례 감사예배를 드렸으며 25일(월)~27일(수) 2박 3일 동안 각종 세미나를 통해 단합대회를 가져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25일 저녁 8시 첫날 신년하례 감사예배는 실무회장 박현희 목사 진행으로 시작되어 대표회장 권영자 목사는 요엘 2장 21~23절 말씀으로 신년인사를 대신한다며 전국에서 한기여총을 사랑하는 열정이 넘치기에 찾아와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면서 격려했다.

공동회장 송복순 목사는 여호수아 1:7~9절의 말씀을 인용“거룩한 전진”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송 목사는“영성을 겸비한 한기

여총, 전진하는 한기여총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전진하자”고 당부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중심으로 전진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는 한기여총이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권 대표회장은 아프리카 선교에서 악조건 속에서도 모범을 보여준 일행을 선정 선교패를 전달했다.

특별기도에는 1.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산남부지부장 이예스터 목사, 2.세계 경제회복을 위하여, 강원영월지부장 이정희 목사, 3.세계나눔복지재단을 위하여, 대구지부회장 박은희 목사, 4.한기여총 부흥발전을 위하여, 경남 김해 1지부회장 김은진 목사, 5.한기여총 전국지부회장을 위하여, 경기 성



남 중구지부회장 윤병희 목사 등이 나섰다. 아울러 실무회장 광명주 목사의 선창에 따라“한기여총 선서낭목”을 가진 후 실무회장 김소자 목사의 인사 및 광고가 있었으며, 공동회장(설교자)송복순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사진촬영에 이어 저녁 10시~12시까지 단합대회를, 1시부

터는 자정 기도회를 마친 후 취침에 들어갔다. 26일 부총재 허성자 목사는“성령의 불을 받자”라는 말씀을 전했으며, 오전과 오후 계속해서 집회와 세미나가 이어졌다. 27일(수) 오전 9시 30분 대표회장 권영자 목사가 폐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했으며 시상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대한기독교교단연합회 신년하례 감사예배

(사)대한기독교교단연합회 2010년 신년하례식 감사예배를 1월 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연지동 가나안교회 다사랑에서 드렸다. 이날 11개 교단 대표들,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무총장 이상철 목사 사회로 1부 예배가 진행되었고, 예정(연신)총회장 강태원 목사가 대표기도를, 예정(대신개혁)총회장 김선호 목사가 성경봉독을, SP 김희숙 교수의 특송, 대표회장 김동원 목사가

“미디안 광야의 모세”란 제하의 말씀을 전했으며, 예정(개혁합동)총회장 이모세 목사의 헌금기도가 있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예정(복음)총회장 정재갑 목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하여 예정(보수합동)총회장 박경주 목사, 대한기독교 교단연합회를 위하여 예정(개혁)이재창 목사 등이 각각 특별기도에 나섰다. 전 미주 총신대학 학장 최병관 목사가 격려사를, 예정(개



혁신)총회장 황호관 목사가 축사를 했다. 또한 분회 상임이사 김차규 목사가 인사를, 분회 이사장 김용진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로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 목사의“하나님나라

와 기독교왕국”이란 주제의 특강이 있는 후 신년하례 케익 절단식을 가졌으며, 이종택 목사의 오찬기도가 있었다. 아울러 (사)대기연의 창립총회를 2월 하순경 가질 예정이다.

한국경목총회 임원 신년하례 예배드려

한국경목총회(회장 원현영 목사)는 지난 25일(월)오전 11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2010년 임원신년 하례식 감사예배를 드렸다. “15만 경찰과 60만 가족을 그리스도에게로”주제를 삼고 사무총장 홍왕표 목사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에 김용도 목사(교경중앙회 고문)가 나라의 안녕과 복음화를 위하여, 조희세 목사(분회 증경총회장)는 한국경목총회를 위하여, 이정환 목사는 경찰복음화를 위하여 각각 기도했다.

이어 김중순 목사(경찰청 전 경목실장)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정운선 목사(분회부회계)가 성경봉독을, 참빛교회 찬양단의 특송에 이어 원현영 목사(분회총회장)는“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박양우 목사(분회부서기)가 봉헌기도를, 엄신형 목사(한기총대표회장)의 신년사, 고병수 목사(기독교한국성경회 감독)의 축사가 있었다. 총회장 원현영 목사는 감독 고병수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김태동 목사(증경총회장) 축도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쳤다.

탐방 / 서울 구로교경협의회(경목회)

“지역안녕 위해 관내 경찰복음화와 지역사회 복음화에 역점”



“서울 구로 교경협의회(경목회)는 지역의 안녕을 위해 관내 경찰복음화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역점을 두겠다” 서울 구로경찰서 교경협의회(경목회) 총무 김수정 목사(경찰교회)는 교경협의회(경목회)에 대해 남달리 사명이 투철함을 느낄 수 있다. 총무로서의 맡은 바 사역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 교경협의회(경목회)가 발족된 취지와 2010년도의 기획, 목표(사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1982년도 3.2일 교경협의회 경목실 경찰교회가 당시 지하에 설립되어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약 7년 전 윤재문 서장이 부임해서 지상 4층으로 경찰교회를 옮겼다. 사실 구로경찰서 경찰선교회를 25년 전 라진호 목사(구로반석교회)에 의해서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현 교경협의회(경목회)가 있기까지 라 목사의 업적이 크다 하겠다. 불행하게도 6년 전 라진호 목사가 교통사고로 인해 전유성 목사가 제 2대 실장을 맡게 되었다.

2009년 11월 3일 본 교경협의회는 실크로드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회장에 박재욱 목사(연희미용고등학교장)가 선출되었다.

신임회장 박재욱 목사에게 총무 김수정 목사는 “박 목사는 각종 선교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갖고, 오래 전부터 여러 군부대와 구로교구협의회, 구로교경협의회를 위하여 헌신해 왔기에, 신임 교경협의회 회장으로서 2010년도는 특별히 경찰선교회를 위하여 희생적인 각오로 그의 특유의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교경

협의회를 이끌어 갈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면서 박 회장의 결단과 추진력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고 말하고, 교경협의회가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큰 비전을 갖게 됐다고 김 총무는 말한다.

아울러 총무 김수정 목사는 회장 박재욱 목사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서울 구로 교경협의회가 한국교계에 가장 모범된 경찰선교회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교경협의회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재욱 목사(연희미용고등학교장), 수석부회장 김길진 목사(구로동감리교회), 부회장은 박주환 목사(메다니교회), 윤기순 목사(구로중앙교회), 최홍규 목사(가리봉교회), 김문경 목사(초원감리교회), 김승복 목사(봉신교회), 김상용 목사(남도교회), 장영희 목사(서울중앙교회), 경목실장 한상희 목사(신성교회), 총무 김수정 목사(경찰교회), 서기 회계 조종환 목사(오류성결교회), 부서기 장창운 목사(열린찬양교회), 부회계 남경희 목사(오류동산교회), 선교부장 조경석 목사, 봉사부장 윤병수 목사, 친교부장 이수섭 목사, 섭외부장 서규장 목사 등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경찰선교를 중심으로 경찰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경찰선교회가 기도하면서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여서

구로구에 있는 교경협의회 경목들이 솔선수범 해 주신다면 경찰선교회에 큰 힘이 될 것이며, 교계에 가장 모범된 경찰선교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 위하여 힘써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배순서지 하나를 만들어도 일회용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오래 동안 기억할 수 있게 실용성 있게 만들 것이다. 그것은 구로경찰서는 아주 좋은 일에 세밀하게 충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싶기 때문이다. 또한 구로경찰서에 전년도에 새로 부임해 온 서장을 위하여 선교회에서 구로지역이 무사고 지역이 되도록 힘써 노력할 것이다. 경찰선교회를 중심으로 복음화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서울구로경찰서 교경협의회(경목회)는 매년 신년하례회예배를 비롯해서 부활절행사, 추수감사행사, 경찰의 날 행사, 성탄절 전의경 위로예배 등의 행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기관을 도우시기에 구로경찰서는 청렴도 1위를, 구로구청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석 구로경찰서장은 2009년도에 서울시 경찰관내 청렴도 1위를 차지함으로써 위상이 높아졌으며, 앞으로도 신우회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면서 맑은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구로구 지역이 이미 디지털화 되어 최첨단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구로구청과 경찰서는 항상 협력관계로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지저스타임즈와의 인터뷰를 뜻 깊게 생각하고 작은 힘이지만 언론에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본지 발행인 정기남 기자(gn88@paran.com)



서울구로경찰서 교경협의회 2009년 성탄절 전·의경 위로예배 광경.

와보라!! 기적의 현장으로

찬양치유[무료]시범설명회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렘17:14)

주강사 장 창 윤 목사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총재 / 서울열린찬양교회 담임)

매주 토요일 오후2시~5시 열린찬양교회
(구로보건소, 구로5동 동사무소옆 100m)

찬양의 비밀을 벗긴다

리듬이 주는 메시지!!! 멜로디가 주는 메시지~!!!

02)862-3181, 010-5678-9950



웨신총회부흥사회 대표회장